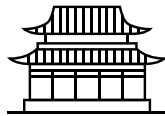


위대한 유산:
현대미술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2024. 5. 1 - 7. 7



The Great Heritage :
Exploring Korean Cultural
Heritage Through Art

목차

Contents

Foreword			4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Lee Myung-Ok(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Curatorial Essay			6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Curatorial Team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8
List of UNESCO Cultural Heritage 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Plates / Artists			
세계유산	강홍구	Kang Hong Goo	14
World Heritage Sites	황선태	Hwang Seontae	20
	베르트 할프헤르	Bernd Halbherr	26
	황란	Hwang Ran	32
	이종근	Lee Joongkeun	38
	이돈아	Lee Donah	50
	주도양	Zu Doyang	58
	진귀원	Jin Gui One	64
	이명호	Lee Myounggho	72
무형문화유산	일라이 리드	Eli Reed	8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돈아	Lee Donah	92
	황인선	Hwang Insön	98
세계기록유산	황인선	Hwang Insön	108
Memory of the World	김용관	Kim Yongkwan	116
지도로 보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124
Korea's UNESCO-listed Cultural Heritage on a Map			
작가약력 Artist CV			126

Foreword

We are pleased to present *The Great Heritage, Exploring Korean Cultural Heritage through Art*, an exhibition organized for Museum Week 2024. This exhibition features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who reinterpret Korea's UNESCO-listed World Heritage Si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tes, and World's Documentary Heritage Sites from unique perspectives.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s explore the beauty and significance of World Heritage Sites such as Changdeokgung Palace, Jongmyo Shrine, Suwon Hwaseong Fortress, Haeinsa Janggyeong Panjeon, Jeju Volcanic Islands and Lava Tubes, Gyeongju Historic Areas, Dolmen Ruins, Korean Tidal Flats, and Hahoe Village, as well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Ganggangsullae, Jeju Haenyeo Culture, Kimjang Culture in their authentic styles. They als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World's Documentary Heritage Sites, including Goryeo Daejanggyeong, and Hunminjeongeum Haerye, which are highlighted through a variety of artforms, such as painting, photography and sculpture, installation art and media art.

The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intrinsic valu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share it with the world through these artworks. It also aims to provide rich learning opportunities for visitors through educational and interactive programs that delve into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hrough archival materials. Through this, we hope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Korea's beautiful cultural heritages. We especially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raise the global awareness of K-Culture. We further hope that visitors will also develop a deeper appreciation and interest in Korea's 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exhibition.

May 2024.

Lee Myung-Ok

Director,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인사말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이하여 기획된 《위대한 유산: 현대미술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전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현대미술가들의 독창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창덕궁, 종묘, 수원 화성, 해인사 장경판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 유적, 한국의 갯벌, 하회마을과 같은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강강술래, 제주해녀문화, 김장 등의 무형문화유산, 고려대장경판, 훈민정음 해례본을 포함한 세계기록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회화, 사진,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형식으로 조명합니다.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전시는 고증자료를 통해 한국문화유산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K-Culture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도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4. 05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Curatorial Essay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to offer our viewers a fresh cultural experience through the convergence of tradition and contemporaneity by exploring and interpreting a list of Korean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tes, and World's Documentary Heritage Sites. Through the lens of contemporary art, the exhibition seeks to raise awareness of the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and the value of its heritage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while also promoting an internation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overall K-Culture. As such, our curatorial approach can be regarded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 Educational value: As the first ever exhibition in Korea to focus on Kore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our show presents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shows how cultural heritages are live accounts of history, affecting generations both present and future, and thus raises awareness of the meaning of heritages beyond mere relics of the past. The exhibition also serves as a strong educational vehicle. It provides visitor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reminds them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cultural heritage.
-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is exhibition, 12 contemporary artists bring their individual artistic language and techniques to reinterpret Korea's cultural heritage. The innovative ways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explored Korea's unique traditions by adapting, transforming, and reproducing them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art is an important cultural experiment that reveals novel creative expressions emphasizing the harmoniz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 Cultural pride and shared history: This exhibition of Kore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vites viewe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cultivate a deeper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Korean culture. By showcasing Korea's distinct cultural asse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how also emphasizes on a global scale how K-Culture is not limited to modern trends but rather has deep roots in traditional heritage. In such a way, recognizing Korea's cultural heritage on the global stage strengthens Korean identity and creates a sense of international cultural solidarity.

May 2024.

Curatorial Team,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기획의 글

본 전시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현대미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소개하는 기획전으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K-Culture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교육적 가치의 제공:**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국내 미술관 최초의 기획전으로, 전국에 분포된 문화유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한다. 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전시는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12명의 현대미술가들이 각자의 독특한 예술 언어와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 현대 예술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 변형 및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참여작가들이 문화유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혁신적 방법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표현을 탐구하는 중요한 문화적 실험이다.
- **문화적 자긍심과 역사의 공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유산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전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심층적인 이해와 존중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국제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K-Culture가 현대적 트렌드에 국한되지 않고,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문화임을 강조한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2024. 05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한국은 1950년 6월 14일에 55번째의 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했고 총 56개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문화유산 14건, 세계자연유산 2건, 무형문화유산 22건, 세계기록유산 18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의 유네스코 유산 보유국가 168개국 중 21번째로 세계유산이 많은 국가이다.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으로,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전라남도의 염전', '한양도성',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 약 10개가 있다.

세계유산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문화유산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등과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 고고 유적지

•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복합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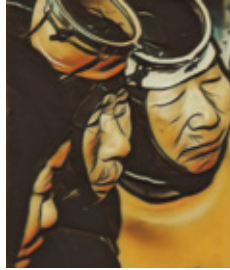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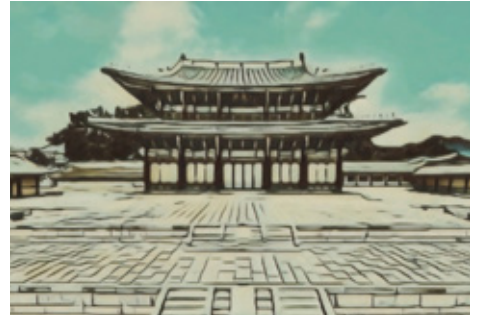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기록일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수도 있다.



유네스코란?

유네스코(UNESCO)*는 UN**산하의 교육·과학·문화기구로, 세계 각국의 교육 활동 지원, 과학과 기술 협력, 문화사업을 관리 및 지원하는 기관이다. 유네스코는 이집트 등 고대문명의 유산들이 세계 대전 이후 훼손·방치된 현장을 보고, 1972년부터 전개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세웠다. 1989년엔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를 토대로 무형유산을 보호·계승하는 협약을 채택했으며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 '세계의 기억'사업의 추진 하에 인류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고자 지정되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국가, 민족에 무관하게 전 지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인류의 유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지역 공동체와 국가가 자신들의 유산이 지닌 가치를 되새기며 앞으로 보존에 힘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United Nations, 국제연합

List of UNESCO Cultural Heritage 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becoming the 55th member state of UNESCO on June 14, 1950, South Korea has inscribed a total of 56 heritage sites on the UNESCO list. These include 14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2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2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tes, and 18 World Record Documentary Heritage Sites inscribed between 1995 and 2023. This makes Korea as the 21st country with the most World Heritage Sites(cultural, natural, and mixed) out of 168 countries with UNESCO heritage in the world. Currently, there are about 10 heritage sites on the provisional list, which include the Jeollanam-do's Salt Pans, Hanyang-do-seong(the Seoul City Wall), and the Dinosaur Fossil Sites along the southern coast.

World Heritage Sites

The concept of 'World Heritage' has emerged from distinct and diverse heritage sites possessing universal values belonging to all of humanity.

·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s include monuments, buildings, commemorative sculptures and paintings, and structures independent of or associated with them, as well as archaeological sites.

· Na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s include natural monuments, either inorganic or biological, the habitats and natal areas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natural sites, or nature reserves.

· Complex Heritage

Complex heritage refers to heritages combining characteristics of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consist of both traditional and vital culture. It encompasses the knowledge, skill, performing arts, and cultural expression that communities and groups have continuously reinvented in response to the interaction with their environment, nature, and history. They are collective in nature, shared within communities and transmitted through people in their everyday lives, often through oral tradition.

World's Documentary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UNESCO established the Memory of the World(MOW) program in 1992. It was launched in response to growing awareness of the threats to the preserv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and to improve access to it sites around the world. An archival record is a record of information or a medium for communicating that information. It can be either a single record or a collection of records—'archival fonds'.

About UNESCO

UNESCO* is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that manages and supports educational activiti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ultural projects around the world. Seeing that many heritage sites of ancient civilizations, including ancient Egyptian heritage, had been damaged and neglect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UNESCO promoted the project of 'UNESC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1972, which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design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In 1989,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ased o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In 1992, World's Documentary Heritage Sites began to be designated as part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ject to preserve important records of humanity.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dicates that these sites represent an important heritage of humanity that should be protected worldwid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 ethnic origin. Inscription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can help local communities and nations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ir heritage and contribute to its preservation in the future.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강홍구	한국의 갯벌
황선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베른트 할프헤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황란	창덕궁
이중근	종묘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이돈아	경주 역사 유적 지구
주도양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진귀원	고인돌 유적
이명호	수원 화성

World Heritage Sites

Kang Hong Goo	Getbol, Korean Tidal Flats
Hwang Seontae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Bernd Halbherr	Jeju Volcanic Islands and Lava Tubes
Hwang Ran	Changdeokgung Palace
Lee Joongkeun	Jongmyo Shrine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Lee Donah	Gyeongju Historic Areas
Zu Doyang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Jin Gui One	Dolmen Ruins of Gochang, Hwasun, and Ganghwa
Lee Myoungho	Suwon Hwaseong Fortress

강홍구

Kang Hong Goo

<뼉의 기억>은 작가가 신안 갯벌을 촬영한 후 사진 위에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남 신안 갯벌에서 자랐던 작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다. 작가는 갯벌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 그 주변의 조개, 게, 도요새 등을 과장된 크기로 그리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갯벌의 생태적, 문화적 유산 가치를 강조한다.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안의 갯벌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지형,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작품은 신안 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예술적 시각으로 다시 풀어내어, 갯벌이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명의 터전임을 보여준다.

Memory of Mud is an artwork consisted of painted photographs of the Sinan Tidal Flats. The artworks convey Kang's childhood memories of growing up near the Sinan Tidal Flats of Jeollanam-do. The work depicts children joyously playing across the tidal flats of Sinan, surrounded by shells, crabs, and shorebirds which are exaggerated in size, emphasizing the innocence of childhood and the ec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value of the flats. Lis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July 2021, the tidal flat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recognized for their outstanding biodiversity and importance as a habitat for a wide range of marine life,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The Sinan Tidal Flats were designated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recognition of their rich biodiversity, unique topography, and importance as a migratory stop for birds. This work reinterprets these values of the Sinan Tidal Flats through an artistic lens, showing how beyond a part of nature, it is a place of life, closely connected to our own.





빨의 기억
Memory of Mud
2022, Digital Pigment, Drawing Collage, 140×280cm

한국의 갯벌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신안 갯벌은 2021년 7월,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지형,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음은 신안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주요 배경이다.

1. 풍부한 생물 다양성

- 2,169종의 생물 종: 신안 갯벌은 해조류 144종, 대형저서동물 568종, 물새 90종 등을 포함하여 2,169종의 생물 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갯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멸종위기종 서식지: 신안 갯벌은 IUCN 적색목록(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평가 시스템)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물 18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이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철새들의 중요한 기착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독특한 생태계: 신안 갯벌은 조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갯벌과 염습지, 사구 등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를 기반으로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2. 독특한 지형

- 넓은 갯벌 면적: 신안 갯벌은 약 1,100.86km²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전 세계 갯벌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이다. 넓은 갯벌 덕분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섬갯벌: 신안갯벌은 수많은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조수로가 만들어낸 섬갯벌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암반으로 구성된 섬의 절경들과 갯벌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있어 수많은 해양생물들과 철새들에게 서식지이자 먹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조류 흐름: 신안 갯벌은 무수히 많은 조수로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조류의 흐름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발달하고 있다.

3. 철새 이동 경로

-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 경로: 신안 갯벌은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신안 갯벌에서 쉬고 먹이를 찾아가며, 이는 국제적인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다양한 철새 종: 신안 갯벌은 수많은 멸종위기의 철새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보호하는 다양한 위기종들이 휴식하고 서식하는 지역이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를 포함하여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무리물떼새 등 다양한 철새들이 신안 갯벌을 중요한 기착지로 삼고 있다.
- 철새 보호: 철새를 비롯하여 신안갯벌의 생태계 보호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국내외 보호지역을 다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새의 보호를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에 보호펜스를 설치하고, 철새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조사와 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 안좌도 갯벌 Tidal flats in Anjwa-myeon, Shinan



신안 갈우도 Galudo, Shinan

Getbol, Korean Tidal Flats

The background and value of the Sinan Tidal Flats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July 2021, Sinan Tidal Flats was inscrib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recognition of its high levels of biodiversity, uniqueness in geographic conditions, and crucial stopover sites for migratory birds. The main reasons for inscribing Sinan Tidal Flat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re as follows.

1. Biodiversity Enrichment

- 2,169 species: Sinan Tidal Flats is home to 2,169 species, including 144 species of marine algae, 568 species of macroinvertebrates, and 90 species of water birds. This is the highest of any tidal flat in the world.
- Habitat for endangered species: Sinan Tidal Flats are home to a wide range of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including 18 endangered species on the IUCN Red List (a global assessment system for threatened specie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I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opover point for migratory birds, especially the Black-tailed Godwit, Red-shouldered Godwit, Yellow-billed Egret, Spoonbill, and Black-headed Gull.
- Unique ecosystem: Sinan Tidal Flats have a unique ecosystem where a wide variety of birds, fish, crustaceans, mollusks, plants, and other organisms coexist. All the different types of habitat found in the tidal flats, including mudflats, salt marshes, and sand dunes, contribute to this high level of biodiversity.

2. Unique Terrain

- Large tidal flats: With an area of approximately 1,100.86 square kilometers, Sinan Tidal Flats are one of the largest tidal flats in the world. The large tidal flats provide space for a wide variety of creatures to live and forage.
- Island tidal flats: The distinctive feature of Sinan Tidal Flats consists of numerous islands and mudflats created by tidal channels flowing between the islands. The intermingling of the tidal flats with the scenic rocky islands has provided an important habitat and feeding ground for many marine species and migratory birds.

- Tidal currents: Sinan Tidal Flats is characterized by a myriad of tidal channels and high-powered tidal currents,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tidal flats.

3. Migratory Flyways

-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Sinan Tidal Flats is a key stopover point o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Millions of migratory birds rest and feed on the Sinan Tidal Flats each year,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global ecosystem.
- Diverse migratory bird species: Sinan Tidal Flats supports a large number of endangered migratory birds. It is also a resting and breeding area for many internationally protected species. In particular, the migratory birds including the Yellow-billed Spoonbill, the Black plover, and storks, which are listed as a Class 1 endangered wildlife species.
-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tected areas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to protect the ecosystem of Sinan Tidal Flats, including migratory birds.

To protect migratory birds, which play a significant ro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install protective fences around major migratory sites and develop non-intrusive research and observation programs.

황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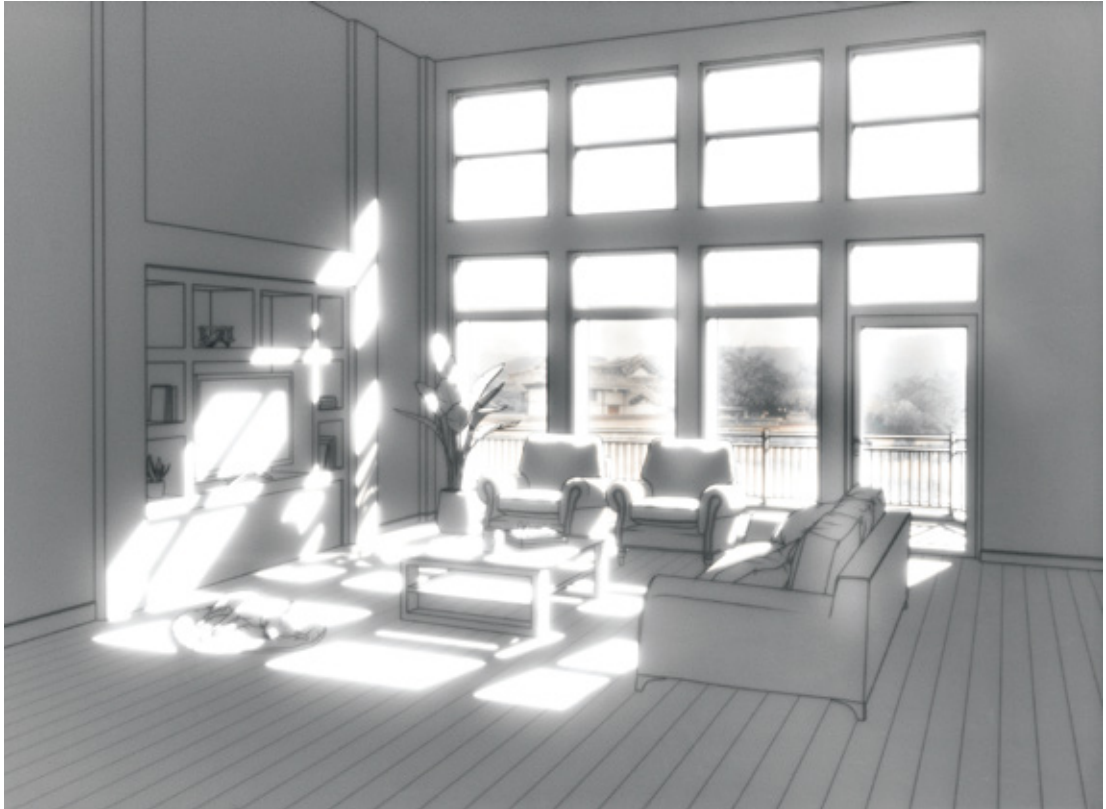
Hwang Seontae

<빛이 드는 공간>은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풍경과 현대 실내 공간을 하나의 화면에 결합한 설치작품이다. 강화유리와 빛(LED), 녹색 선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실내 창문을 통해 안동 하회마을을 바라보는 독특한 구성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작가는 창문을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표현한다. 창문 밖 하회마을 풍경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가는 강화유리, 샌딩(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기법), LED 라이트를 활용한 독창적 기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정적을 표현하는 한편 빛의 물리적 특성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빛의 미세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빛과 유리라는 현대적인 재료를 통해 전통 풍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이 작품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The Space with Sunshine is an installation piece combining the traditional landscape of Andong Hahoe Village, a location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August 2010, with a modern interior space. Composed of tempered glass, LED lights, and green lines, the work is a unique composition that views Andong Hahoe Village through an interior window,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to create a new visual experience. The artist presents the window as a symbolic space that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real and the virtual. The view of Hahoe Village outside the window allows the viewer to escape everyday space and travel back in time to the past, while also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present and think about the future. By using tempered glass, sandblasting(a technique used to engrave text or drawings), and LED lights, the artist uses an original technique to express invisible light and silence while maximizing the physical properties and visual effects of light. This emphasizes the subtle beauty of light, which is easily overlooked by people in our time in their daily live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viewer to explore the links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beyond physical space and time.



detail cut



빛이 드는 공간

The Space With Sunshine

2024, Tempered Glass, Sandblast & LED Backlit, 112×152×4cm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안동 하회마을이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은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 건축 양식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온전히 보존해 온 점에 기인한다. 다음 주요 요소들은 하회마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 전통 생활문화의 온전한 보존

하회마을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된 마을로서,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농경문화와 생활 양식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마을 곳곳에 조성된 사당, 서당, 정사 등도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전통 음식을 먹으며, 전통 놀이를 즐기는 등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가 어떠한지 생생하게 경험하며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 전통적인 건축 양식

하회마을의 한옥들은 ㄷ자형, ㄱ자형, ㄴ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안채와 별채, 사랑채, 행랑채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마을 곳곳에는 솟음지붕, 맞배지붕과 같은 지붕 처마의 형태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 양식들은 조선시대 주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의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회마을의 한옥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3.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하회마을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며 살아오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또한, 마을에는 다양한 전통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 하회마을의 전통 놀이

- 살아있는 유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통 놀이의 계승이다. 하회마을에는 과거 서민들이 즐겼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이 즐겼던 '선유줄불놀이'가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마을 마당(탈춤전수관)에서 열리는 탈놀이로 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놀이가 아닌, 서민들의 삶과 소망을 담은 신성한 의식이다. 마을 사람들은 탈놀이를 통해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고,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탈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선사하며, 일상의 고된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음력 7월 16일 하회마을 부용대 밑을 흐르는 강 위에서 열리는 불꽃놀이이다. 최근에는 전통을 알리기 위해 축제와 행사 기간에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놀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놀이 중 하나로, 강물 위에 줄을 매단 후 그 줄에 불을 붙여 불꽃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놀이다. 선비들은 이 놀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가를 즐겼다.

5.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하회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동편에는 해발 328m의 화산(花山)이 있으며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낙동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텃밭을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아왔다. 하회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회마을을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회마을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고 있는 탁월한 예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 경상북도 안동 Hahoe Village in Andong, Andong, Gyeongsangbuk-do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Hahoe Villag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Hahoe Village in Andong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0 for its ability to preserve the traditional Korean lifestyle, architectural style, and sustainable community life intact for centuries. The key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Hahoe Village becoming a globally recognized cultural heritage site are as follows.

1. Preservation of Traditional Lifestyle

Settled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ahoe Village has preserved the traditional farming culture and lifestyle of that era: It has remained almost unchanged to this day. The shrines, Seodangs(private village school), and pavilions scattered throughout the village are well preserved. Generations of villagers continue to live as their ancestors did, wearing traditional clothes, eating traditional food, and playing traditional games. This is an invaluable resource for experiencing what traditional Korean life was like.

2.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The Hanoks in Hahoe Village have a variety of shapes, including ‘ㄷ’-shaped, ‘ㅁ’-shaped, and ‘ㄴ’-shaped, and are harmoniously arranged with inner houses, outbuildings, Sarangchae(guest rooms), and Hangrangchae(servants' rooms). Various architectural styles can be seen throughout the village, such as different types of eaves, including soaring roofs and gable roofs. Such architectural styles are characteristic of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in the Joseon Dynasty. They ar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techniques. The Hanoks in Hahoe Village are naturally integrated with their surroundings, enhancing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3. Sustainable Communities

Hahoe Village is a community that has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very strong sense of community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villagers. There are a number of traditional events and festivals held in the village, which strengthen the bonds between residents. It could be said that Hahoe Village is a prime example of what sustainable community living should look like.

4. Traditional Entertainment in Hahoe Village

-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living heritage i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games. In Hahoe Village, the 'Hahoe Byeolsingut Talnori(mask dance drama of Hahoe)', which was enjoyed by the common people in the past, and the 'Seonyu Julbulnori(traditional fireworks)', which was enjoyed by the scholars, are still practiced today.
- Hahoe Byeolsingut Tallori is a traditional mask dance drama performed in the courtyard of Hahoe Village(Tal Dance Hall). It is not just an entertainment, but rather a sacred ritual that reflects the lives and aspirations of the common people. The villagers pray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their community and strengthen their sense of community b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o overcome difficulties. For the villagers, it has brought joy and comfort, and a chance to forget the hardships of everyday life.
- The Seonyu Julbulnori Fireworks Festival is held every year on July 16th of the lunar calendar, over the river that flows under Buryongdae in Hahoe Village.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en held during festivals and community events to promote the tradition. One of the most popular performances among Joseon Dynasty scholars, this spectacular display involves tying ropes to the river and lighting them to create fireworks. It was a recreational activity that allowed them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scenery.

5.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Hahoe Village is a village that has been built in harmony with nature. To the east side of the village is Mt. Hwasan, which rises 328 metres high. Together with the Nakdong River, which flows through the village, it creates a beautiful scenic landscape. The villagers have made use of this natural environment to cultivate home gardens, plant trees, and drink clear water. Hahoe Village is a prime example of how man and nature can coexist in perfect harmony.

All of these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importance of the village as a living cultural heritage site and have led to its recognition on a global scale. Hahoe Village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how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community values have been preserved to the present day, contributing to the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o people around the world.

베른트 할프헤르

Bernd Halbherr

<유산(Legacy, Vermaechtnis)>은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소재로 한 현대미술 작품이다. 이 작품은 2차원의 사진을 사용해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360도 구형 작품으로 제작되었으며, 관객들에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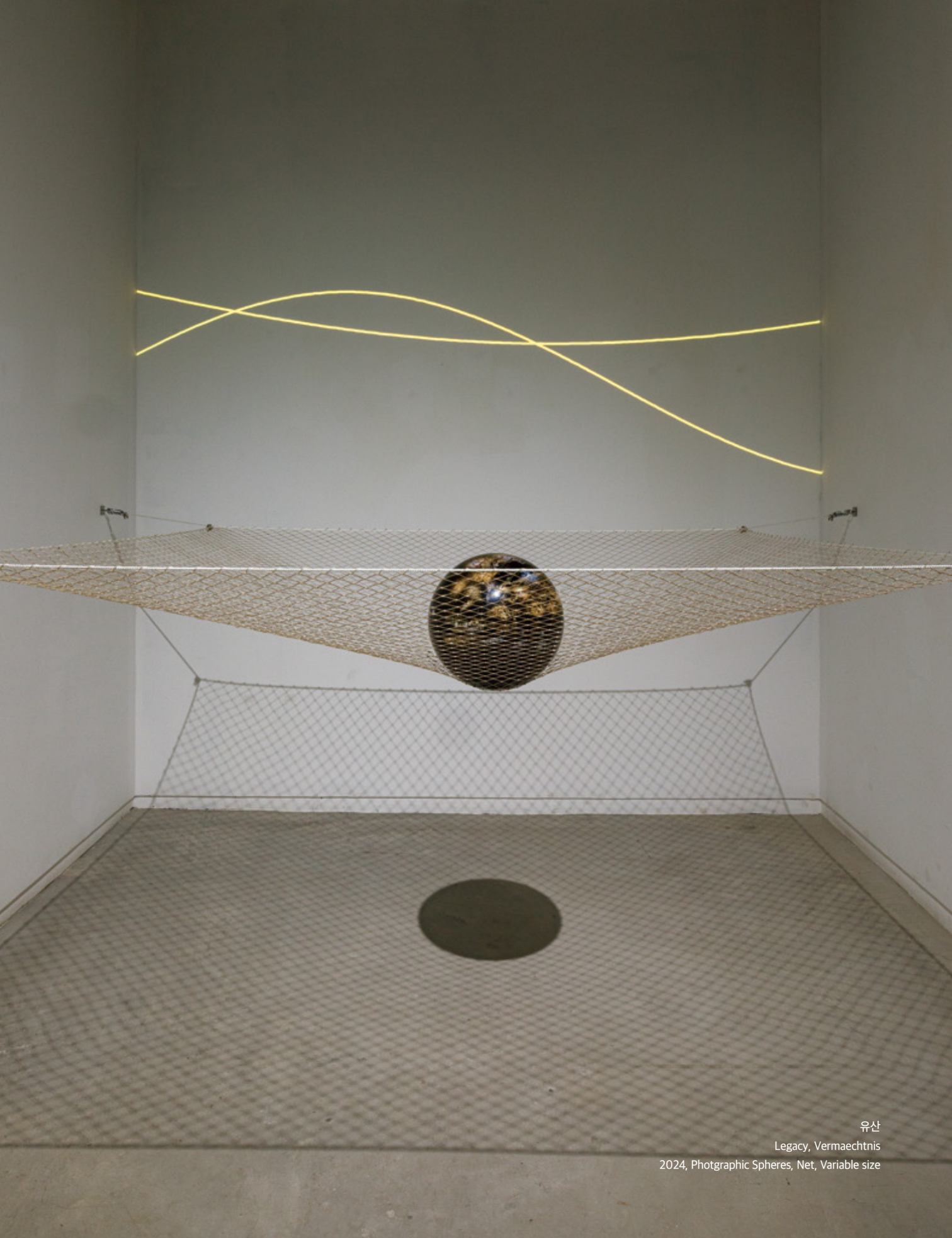
이 구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설치된 그물망 위에 놓여 있으며, 벽면에는 구가 생성하는 영상의 물결 같은 2개의 선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자아낸다. 이는 제주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상징한다. 그물망은 이 작품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연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을 위한 무차별적인 개발과 환경파괴의 결과로 자연이 처한 위험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동시에 제주도의 자연이 직면한 취약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Legacy is a contemporary artwork based on the volcanic island of Jeju and its lava tubes, which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List in June 2007. It is a 360-degree spherical work that uses two-dimensional photography to expand the human visual experience, providing viewers with a complete image of the volcanic island of Jeju and its lava caves.

The sphere is placed on a net at the viewer's eye level, and there are two wavy lines reflected by the sphere on the wall, creating a sense of psychological unease. This is a symbol of the beauty of Jeju's nature, but also of the danger it is in. The net in this work connotes a double meaning. While it symbolizes human attempts to protect nature, it is also used as a tool to express the dangers that nature faces as a result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for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celebrates the beauty of Jeju Island while emphasizing the fragility of the island's nature and the need for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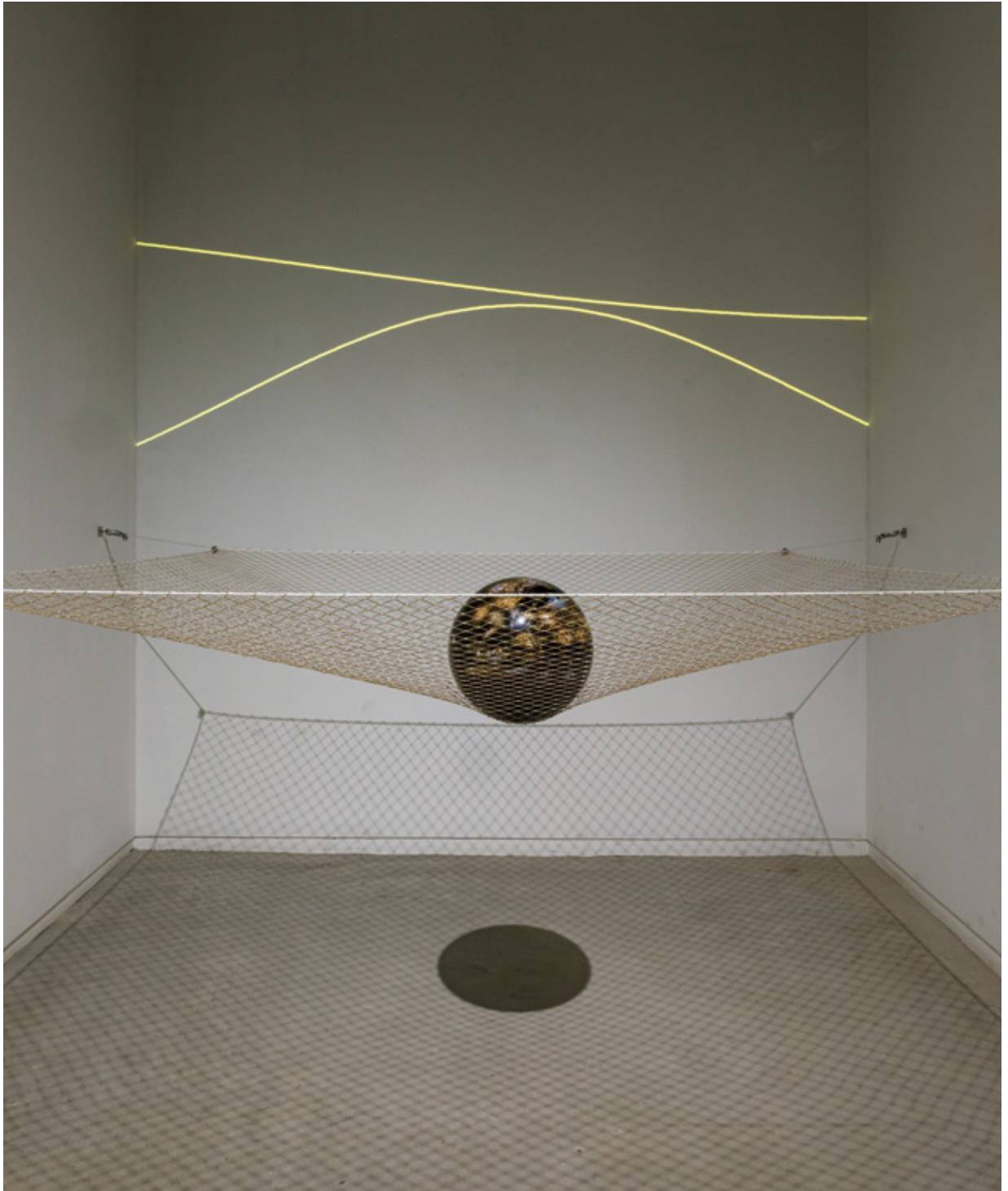


detail cut



유산
Legacy, Vermaechtnis
2024, Photographic Spheres, Net, Variable size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은 제주도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이 지역이 보여주는 자연경관의 탁월함 때문이다.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 지역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화산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화산 구조와 기생오름, 용암류, 응회구, 해안 절벽 등의 지질학적 형태가 발견된다. 한라산은 남한 최고봉의 활화산으로, 주변에는 360여 개의 오름(단성화산체를 뜻하는 제주 방언)들이 있다. 화산섬은 약 180만 년 전부터 활동해 온 화산이며, 지질학적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길고 잘 보존된 용암동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용암동굴로는 만장굴, 김녕굴, 뽕뒤굴 등이 있으며, 이들 동굴은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자연적 통로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용암동굴 형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장소이다.

2.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제주의 독특한 화산 지형과 기후 조건은 특유의 생태계와 고유종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 섬 전체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 여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특히 멸종위기종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산섬은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며, 다양한 생태계의 연결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고유성

제주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섬 전체가 풍부한 자연의 미를 보여주며, 특히 해안선과 해변, 폭포, 용암동굴 등은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며, 자연경관 감상과 레저 활동에 적합하다.



제주 화산섬 Jeju Volcanic Islands



제주 용암동굴 Jeju Lava Tubes

Jeju Volcanic Islands and Lava Tubes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was inscribed on the UNESCO Heritage List for its unique 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outstanding natural beauty.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June 2007, the area holds significant geoscientific value for the following reasons.

1. Volcanic and Geological Features

Jeju Island is an island formed by volcanic activity, with various volcanic structures and geological features such as parasitic cones, lava flows, tuff cones, and coastal cliffs centered on Mt. Hallasan. Mt. Hallasan is the highest active volcano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more than 360 oreums (Jeju dialect for monogenetic volcano) surrounding it. This volcanic island has been in existence for approximately 1.8 million years and provides important resources for the study of geological history. It also has one of the world's largest, longest and best-preserved lava tubes in the world. Manjanggul Cave, Gimnyeonggul Cave, and Bengdwigul Cave are the most famous lava tubes formed naturally by lava flows. These caves are important sites for studying the morphology of lava tubes of different shapes and sizes.

2. Ecosystems and Biodiversity

Jeju's unique volcanic terrain and climatic condi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 unique ecosystem and endemic species. The entire island of Jeju, including Hallasan National Park,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plants and animals. Rich in diversity, it is a home to several endangered species. In particular,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Located on the East Asia-Australasian Flyway, this volcanic island serves as an important link in an ecosystem of diversity.

3. The Beauty and Uniqueness of the Nature

Jeju Island boasts a beautiful natural scenery. While the entire island is rich in natural beauty, the coastline, beaches, waterfalls, lava caves, etc. are particularly well known for their spectacular beauty.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it is perfect for both scenic viewing and leisure activities.

Sources:

World Heritage Center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Provincial Office, Korea Heritage Service

황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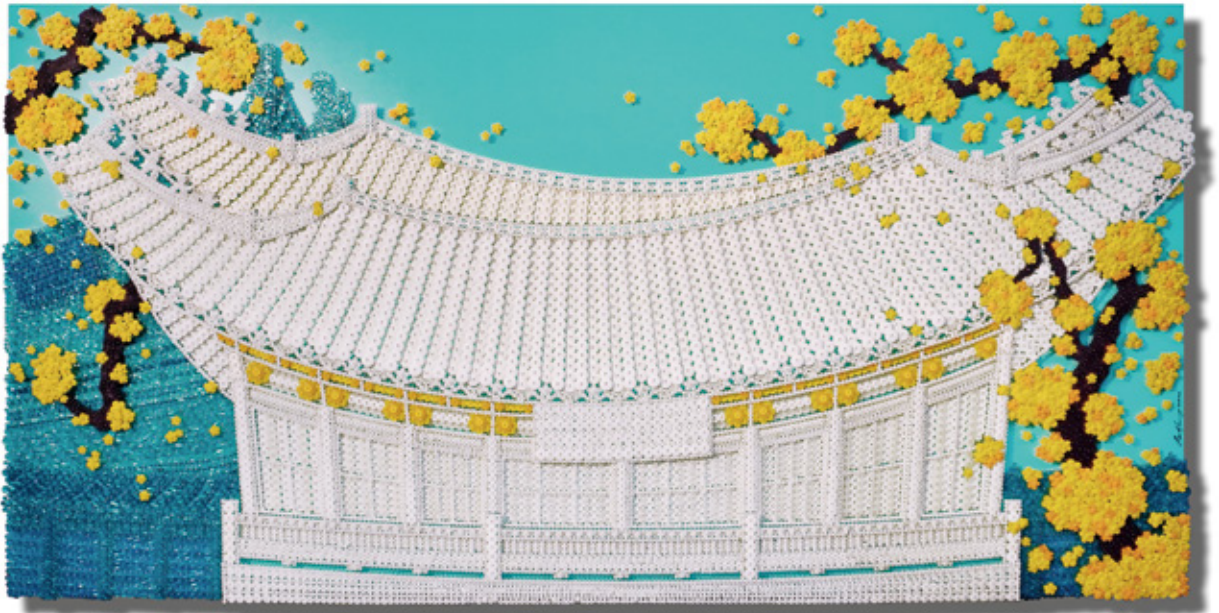
Hwang Ran

<겨울바람 너머로...>는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의 건축미와 단청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단추, 핀, 실, 구슬, 크리스털 등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창덕궁 인정전의 지붕 구조와 기와, 단청의 꽃무늬 등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건축 요소들을 섬세하게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창덕궁의 고전적 아름다움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관람객에게 친근한 형태로 전통미를 전달한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단추들은 인간의 복잡한 삶과 사회적 다양성을 상징한다. 왜곡된 건축 구조물 이미지는 현대 사회의 인간 욕망과 허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 작품은 섬세한 표현력과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며,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변환함으로써 예술적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Beyond the Winter Wind.. sheds new light on the architectural beauty of Changdeokgung Palace, which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7, and the beauty of its Dancheong. The work is composed of materials such as buttons, pins, threads, beads, and crystals of various colors and sizes. Using plain, everyday materials, the artist delicately reconstructs the unique Korean architectural style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such as the roof structure and tiles of the Injeongjeon Hall of Changdeokgung and the floral patterns of the Dancheong. The artis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the classical beauty of Changdeokgung Palace and conveys its traditional beauty in a way more familiar to the viewer. The buttons of different sizes and colors symbolize the complexity of human life and the diversity of society. The distorted image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critically reveal the human desires and illusions of modern society, inviting reflection on the lives of modern people who are obsessed with materialistic values. The works are characterized by delicate expressiveness and high technical perfection, offering new possibilities for artistic expression by transforming everyday materials into works of art.



detail cut



겨울바람 너머로...

Beyond the winter wind...

2022, Plastic Buttons, Paper Buttons, Beads, Pins on Wooden panel, 120×240cm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1997년,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창덕궁이 지닌 역사적, 건축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1. 역사적 가치

- 조선 왕조의 정치적 중심지

창덕궁은 1405년 조선 태종에 의해 건립된 이후 조선 왕조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이후 1610년 광해군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펴 온 법궁으로 사용되었다. 왕들은 이곳에서 거처하며 국정을 다스렸으며 왕과 고위 관료들의 주요 행정 및 정치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왕의 즉위식과 같은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국가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인정전은 창덕궁 내에서도 중심적인 건물로, 왕의 공식적인 집무와 왕세자가 책봉되는 중요한 의식을 집행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 국제적인 의례

창덕궁은 조선시대 외교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인정전은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국제적인 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외국 사신을 환영하기 위한 연회도 인정전에서 열렸다. 창덕궁에서 이루어진 외교 행사는 조선 왕조의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은 외국 사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국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 건축적 가치

- 건축미의 정수, 인정전

창덕궁의 중심 건축물인 인정전은 조선시대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뛰어난 건축적 완성도와 아름다운 단청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 균형 잡힌 비례와 정교한 장식

인정전은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팔작지붕 건물로, 균형 잡힌 비례와 웅장한 구조를 자랑한다. 화려한 단청과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특히 용마루 양성 부분에는 다섯 개의 이화문장(李花紋章)을 장식하여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처마 끝에는 익공, 초공 등에 다양한 장식 요소들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선시대 장식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다양한 건축 양식의 조화**

인정전은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조선 전통 건축 양식인 킷마루, 겹처마, 다포, 양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기단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건물의 견고성을 더했다.

3. 문화적 가치

- **문화유산의 보루**

창덕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중건과 복구를 통해 조선시대 문화를 보존해 온 중요한 장소이다. 창덕궁 경내에는 다양한 역사적 유적지와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왕실 문화의 중심**

창덕궁은 조선의 왕실 문화와 예술, 의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이다. 다양한 궁중 의식, 음악, 무용, 문학 등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조선 왕조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조경예술의 상징**

창덕궁 내에 위치한 비원은 전통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으로, 자연경관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조성되었다. 빼어난 경관을 지닌 이 정원은 왕과 왕실 가족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정원 조성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창덕궁의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로 만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



창덕궁 인정전, 서울 Injeong jeon at Changdeokgung Palace, Seoul

Changdeokgung Palac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Changdeokgung Palac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1. Historical Value

- **Political center of the Joseon Dynasty**

Changdeokgung Palace had served as the center of the Joseon Dynasty since its construction in 1405 by King Taejong. Beginning with King Gwanghaegun in 1610, the palace was used as the main royal residence and served as the de facto main palace until King Gojong rebuilt Gyeongbokgung Palace in 1868. This was the palace where the kings lived and ruled the country. As a result, most of the mai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activities of the king and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mostly took place here. It was also the site of important royal events and state ceremonies, such as the coronation of the king. Injeongjeon Hall, in particular, was the heart of Changdeokgung Palace, where the king's official duties and the crown prince's coronation took place.

- **International ceremonies**

Changdeokgung Pala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iplomatic event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njeongjeon Hall was used as a space to receive foreign envoys and hold international ceremonies. Banquets to welcome foreign envoys were also held here. Diplomatic events at Changdeokgung Pala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Joseon Dynasty and strengthening its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Through diplomatic exchanges with foreign envoys,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its political presence in East Asia, learned about other cultures' cultures and technologies, and gained knowledge of international affairs.

2. Architectural Value

- **Injeongjeon hall, the epitome of architectural beauty**

As the central building of Changdeokgung Palace, Injeongjeon Hall is a representative structure that exemplifies the essence of Joseon Dynasty architecture. Its outstanding architectural perfection and magnificent Dancheong(decorative paintings o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symbolize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 **Balanced proportions and elaborate decoration**

Injeongjeon Hall is a hipped and gabled building built on a high platform with balanced proportions and a magnificent structure. It is decorated with colorful Dancheong and delicate carvings, especially the five Ehwa crests on the ridge of the dragon's head, which show excellent craftsmanship. The eaves are decorated with a variety of decorative elements, such as Ikgong and Chogong, and ar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decorative techniques during the Joseon Dynasty.

- **Architectural styles in harmony**

Injeongjeon Hall has achieved its unique beauty by appropriately combining architectural styles from different eras, including the traditional Joseon architectural styles such as Toenmaru(a long narrow wooden porch that runs along the outside rooms), overlapping eaves, Dapo(multiple brackets placed on the lintels between pillars), and Yanghoe. All these elements contribute to the overall harmony of the landscape. a harmonious landscape. Stone was also used for the foundations of the structures, contributing to the solidity of the building.

3. Cultural Values

- **Bastions of cultural heritage**

Changdeokgung Palace holds the significance of preserving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despite undergoing historical crises such as the Imjin War and the Byeongja Horan. A variety of historical sites and relics that are important resources for understanding Joseon society and culture have been well preserved on the grounds of Changdeokgung Palace.

- **The center of royal culture**

Changdeokgung Palace was the center of royal culture, art, and ceremonial events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the site of many royal ceremonies,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literary events, and other cultural events that provided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ing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Joseon Dynasty.

- **Iconic symbol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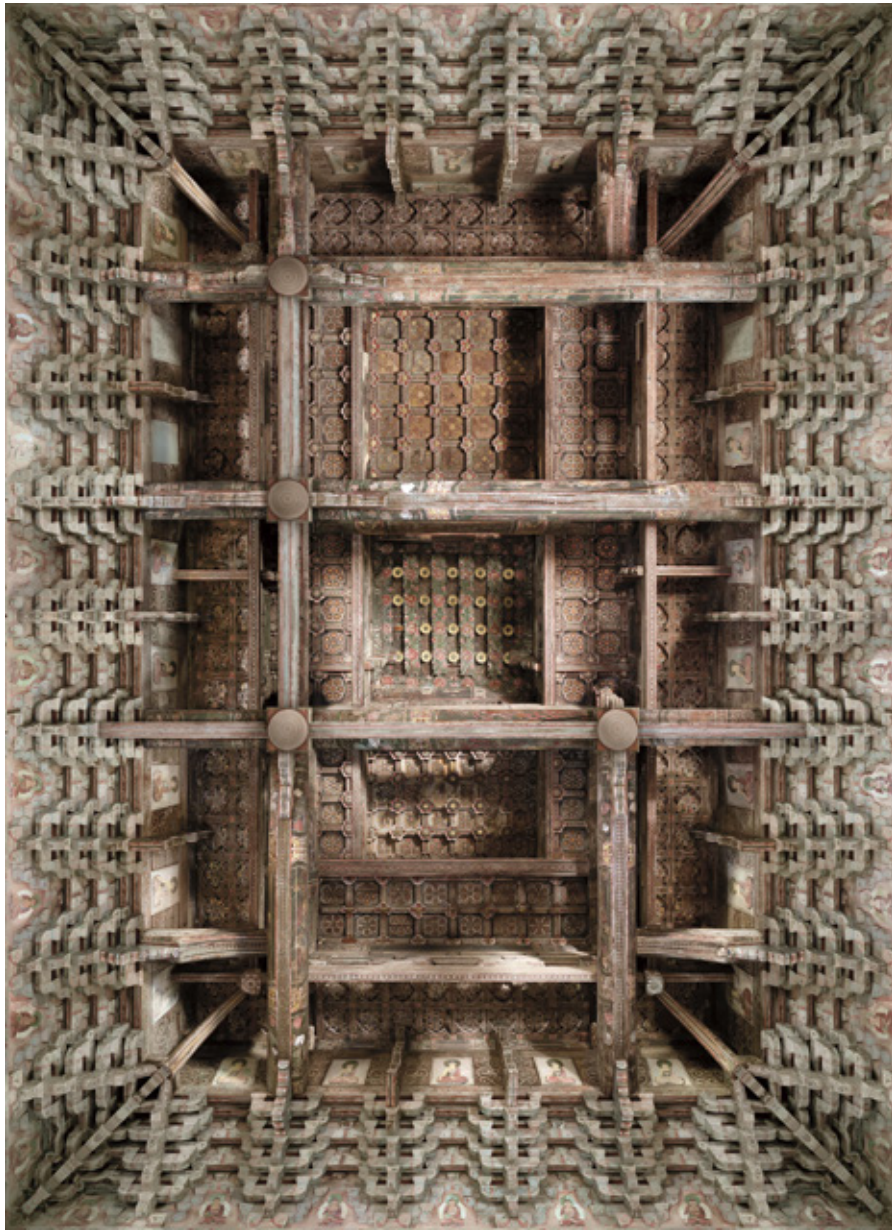
Biwon(Secret Garden) at Changdeokgung Palace symbolizes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gardens, which were designed to emphasize the natural beauty of the landscape rather than artificially enhancing it. Offering spectacular views, it was used as a place for the king and royal family to rest and relax. It is an excellent example of how landscaping techniques evolv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historical, architectural, and cultural values of Changdeokgung Palace continue to inspir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making it not only a legacy of the past, but also part of a living culture.

이중근

Lee Joongkeun

<적멸보궁寂滅寶宮>은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양산 통도사 대웅전 천장 단청의 화려한 색채와 건축미를 담은 사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조선 중기에 세워진 통도사 대웅전 천장을 인간의 눈이나 최첨단 디지털카메라 장비로는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재현했다. 작가는 수백 컷의 사진을 촬영하고 최종 200여 컷의 이미지는 컴퓨터 작업으로 섬세하게 결합해 井(우물정)자 모양의 천장 단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섬세하게 구현했다.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 대신 석가모니불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寂滅寶宮)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이미 열반에 들었음을 의미하며 번뇌로부터 해탈된 평화로운 상태를 상징한다. 모란과 국화 문양의 빛바랜 단청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작품 속 공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적멸의 경지를 경험하게 한다. 이 작품은 17세기 단청의 화려함과 적멸의 고요함이라는 양극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Nirvana is a photographic work that captures the vibrant colors and architectural beauty of the ceiling of Daeungjeon Hall at Tongdosa Temple in Yangsan, a location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June 2018. The work shows a perfect recreation of the ceiling of Daeungjeon Hall, a structure built in the mid-17th century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a way that neither the human eye nor state-of-the-art digital camera equipment can convey. The artist took hundreds of photographs, and the final 200 or so images were delicately stitched together by computer programs to create the overall image of the 井(well) shaped Dancheong ceiling. Tongdosa Temple is known as the Tongdosa Treasure Palace because it houses the actual relics of Shakyamuni Buddha rather than the usual Buddha statue. This means that Shakyamuni Buddha has already entered Nirvana, symbolizing a peaceful state of liberation from suffering. The faded Dancheong of the peony and chrysanthemum pattern indicates the passage of time, and the serene and peaceful atmosphere of the space in the work evokes the experience of Nirvana. The work harmoniously combines the polarizing elements of 17th-century Dancheong splendor and the tranquility of the nihilist world, leaving viewers moved and inspired.



적멸보궁

寂滅寶宮, Nirvana

2021,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80×130cm

한국민속촌미술관 소장, Courtesy: Folklore Museum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양산 통도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등재는 한국의 산사, 즉 산에 위치한 사찰들이 지니는 독특한 건축적, 영적,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이다. 산지 승원으로서 통도사는 자연 속에서 수행과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불교 문화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1. 건축적 가치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통도사의 건축물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청으로 장식되어 있다. 통도사 대웅전의 건축적 특징 중 하나인 井(우물정)자 모양의 천장 단청을 가지고 있다. 이 천장 구조에서는 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미적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찾아볼 수 있다. 단청은 다채로운 색상과 복잡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신성함과 경건함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청은 불교 예술의 깊이와 미적 풍부함을 반영하며, 사찰의 신성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2. 영적 가치

통도사는 특히 적멸보궁으로 유명하며, 이는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眞身舍利, 진짜 유골)를 모신 곳으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적멸보궁은 ‘적멸(寂滅)’ 즉,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상태로 깨달음의 최종 목표인 열반을 상징한다. 이 공간은 번뇌가 없는 평화와 고요의 경지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불교의 교리를 반영한다. 적멸보궁은 통도사 내에서도 특별히 고요하고 집중적인 명상과 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井자 모양의 천장과 적멸보궁은 단순한 건축적 요소를 넘어서, 통도사가 지닌 깊은 영적 가치를 함께 나타낸다.

3. 문화적 가치

통도사는 다양한 불교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된 불화, 조각, 전적 등은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특히 아미타불 삼존상과 지장보살상, 석가모니 불상과 관음보살상은 뛰어난 기법과 아름다운 표현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영조 51년(1775)에 조성된 불화인 영산전 팔상도는 보물 제1041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은입사향완은 보물 제334호, 통도사 범종은 보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통도사에 소장된 불교 경전과 고려 시대의 문서는 한국 불교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통도사 대웅전, 경상남도 양산
Daeung jeon in Tongdosa Temple, Yangsan, Gyeongsangnam-do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Tongdosa Templ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ongdosa Temple in Yangsan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8 under the title ‘Sansa, the Mountain Monasteries of Korea’. This inscription is an important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unique architectural, spiritual, and cultural value of Korea’s Sansa, or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As a mountain monastery, Tongdosa exemplifies the tradition of Korean Buddhist culture that emphasizes practice and educ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1. Architectural Value

Tongdosa Temple is a thousand-year-old temple founded by Master Jajang Yulsa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 of Silla(643). The buildings of Tongdosa Temple are decorated with colorful and beautiful Dancheong. One of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Daeungjeon Hall of Tongdosa Temple is the 井(well) shaped ceiling Dancheong. The aesthetic beauty and sophist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wooden architecture can be found in this ceiling structure. The Dancheong is composed of colorful and intricate patterns and serves to add a sense of sanctity and reverence to the interior spaces of the building. These Dancheongs reflect the depth and aesthetic richness of Buddhist art and emphasize the sacred atmosphere of the temple.

2. Spiritual Value

Tongdosa Temple is particularly famous for its Jeokmyeolbogung Hall(Palace of the Jewel of Nirvana), which houses the true relics of Shakyamuni Buddha. This has a very important spiritual meaning in Buddhism. It symbolizes ‘Jeokmyeol(Nirvana),’ or the ultimate goal of enlightenment, a state in which all suffering and delusion has been extinguished. The hall well reflects a Buddhist doctrine of visualizing and spatially representing of a state of peace and tranquility where there is no suffering. Jeokmyeolbogung Hall is a serene space within Tongdosa Temple, where intensive meditation is practiced. Jeokmyeolbogung, and the ‘井’-shaped ceiling hall, represents something beyond its architectural significance and emphasizes the deep spiritual value of Tongdosa.

3. Cultural Values

Tongdosa Temple houses a wide variety of Buddhist artworks. The Buddhist paintings, sculptures, and text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and treasure-class cultural properties, are an important heritage which demonstrates the outstanding level of Korean Buddhist art. In particular, the statues of Amitabha Buddha, Jizo Bodhisattva, Shakyamuni Buddha, and Guan Yin are renowned for their excellent techniques and beautiful expressions. The Palsang-Do(Eight Scenes of Buddha's Life) of Yeongsanjeon Hall, a Buddhist painting created in the 51st year of the Joseon Dynasty(1775),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1041, and the bronze Silver Ipsa Hyangwan(Bronze Incense Burner inlaid with a Silver Phoenix Pattern) created during the Goryeo Dynasty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334. The Tongdosa Temple Beomjong,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11. In addition to these treasures, the sacred Buddhist texts from the Goryeo Dynasty are important resources for the study of Korean Buddhist history.

<신로 神路>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의 정전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탐구를 통해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두 해 겨울 동안 눈이 내릴 때마다 새벽에 종묘 정전을 방문하여 같은 위치에서 조금씩 수평으로 이동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한 200여 개의 사진 데이터를 사용해, 컴퓨터 작업을 통해 세밀하게 중첩하고 조합하여, 한 장의 사진 안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공간의 깊이를 담아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이지만, 동시에 가상의 풍경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가로 길이가 긴 목조건축물인 정전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창작되었다. 정전의 이러한 건축적 특징은 작품에 깊이와 시간의 연속성을 부여하며,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적, 구조적 요소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 제목인 '신로神路'는 '영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하며, 이는 정전이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영적인 경로와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신로 神路

The Path of the Soul

2021,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68×240cm

한국민속촌미술관 소장, Courtesy: Folklore Museum



The Path of the Soul is an artistic exploration of Korean sentiment and beauty centered on the Jeongjeon of Jongmyo, a location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5. For two consecutive winters, each day it snowed, the artist visited Jongmyo Jeongjeon and took pictures from the same spot, minutely shifting the camera's position horizontally with each shot. Using the data from more than 200 photographs, the artist carefully superimposed and combined the photographs through photo editing software. The result captures the change over time and the depth of space in a single photograph. The landscape is both simultaneously real and virtual in nature. The work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ngjeon, a horizontally elongated wooden structure. This architectural features of Jeongjeon deepens the work's meaning and gives it a sense of continuous tim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xploring the aesthetic and structural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 Korean title of the work, Shinro(신로, 神路), means 'The Path of the Soul,' alluding to Jeongjeon's role as a spiritual path and sacred space beyond physical space.



종묘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종묘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은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중요성에 기반한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곳으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종묘의 정전은 이러한 유교적 의례가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 역사적 가치

- 조선 왕조의 유교적 관습: 종묘는 태조 이성계가 1394년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서울)으로 옮긴 이후 이듬해 완성된 건축물이며,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종묘는 정전, 영녕전, 신덕전 등의 주요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정전은 종묘의 중심 건축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전에는 태조 이성계부터 현종까지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의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 제례의 장소: 종묘 정전은 조선 왕조의 왕들에게 바치는 유교 제사의 중심지로 이 제사는 동아시아 유교 국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규모가 크고 장엄한 행사였으며,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2. 건축적 가치

- 건축 구조와 디자인: 종묘 정전은 한국전통건축의 웅장함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길이가 매우 긴 목조건축물이다. 이 구조는 다수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동시에 모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신주는 고유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웅장한 규모는 조선시대 왕권의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건축적 배치: 정전 내부 공간은 엄격한 규모와 질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유교적 예절과 의례를 반영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정전의 배치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유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신위를 모신 내전과 제사를 지내는 외전의 구분은 종묘의 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한다.

3. 문화적 가치

- 유교 문화의 보존: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유교적 가치와 조상 숭배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조상에 대한 효도심을 표현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종묘 제사는 조선 사회의 계층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의식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은 왕실을 중심으로 단합과 질서를 경험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도모했다. 또한, 제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현대에 이르러서도 종묘의 유교적 가치와 조상 숭배 의식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종묘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전통적 가치를 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묘는 유교 문화를 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유교적 가치와 전통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묘 정전, 서울 Jeong jeon in Jongmyo Shrine, Seoul

Jongmyo Shrin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Jongmyo's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Jongmyo, the royal ancestral shrine,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5 based on its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Jongmyo enshrines the spirit tablets of former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It has been practicing a central role in the Confucian culture of East Asia. The main hall of Jongmyo is of particular significance as a key space for these Confucian rituals.

1. Historical Value

- Confucian practices of the Joseon Dynasty: Completed a year after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moved the capital of the country from Gaeseong to Hanyang(present-day Seoul) in 1394, Jongmyo is an important legacy that symbolizes the authenticity and spiritual roots of the Joseon Dynasty. Jongmyo consists of Jeongjeon(Main Hall), Yeongnyeongjeon(Hall of Eternal Peace), and Sindeokjeon, of which Jeongjeon is the most important as the centerpiece of Jongmyo. Jeongjeon enshrines the royal ancestral tablets of deceased kings and queens from King Taejo Yi Seonggye to King Hyeonjong. It was used as a sacred ceremonial site where the king himself would perform sacrificial rites.
- The site of sacrificial rites: Jeongjeon was the center of Confucian rituals dedicated to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grandiose rituals among the Confucian countries of East Asia, it was an important ritual to pra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of Joseon.

2. Architectural Value

- Architectural structure and design: A prime example of the grandeur and sophist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Jongmyo Jeongjeon is an elongated wooden structure designed to enshrine numerous spirit tablets of deceased kings and queens. Each spirit tablet is housed in its own chamber, and its grand scale reflects the majesty of the royal authority of the Joseon Dynasty.

- Architectural layout: The spaces in Jeongjeon are organized based on strict scale and order, an important feature that reflects the Confucian etiquette and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layout of Jeongjeon reflects Confucian values that emphasize harmony and balance. In particular, the division between the interior hall, where the spirit tablets are enshrined, and the exterior hall, where rituals are performed, further emphasizes the sanctity of Jongmyo.

3. Cultural value

- Preservation of Confucian culture: More than just a building, Jongmyo holds an intrinsic legacy of Confucian values and ancestor worship rituals.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it played a key role in allowing kings to express filial piety to their ancestors and to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kingship. The Jongmyo rit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Joseon society. Through these rituals, all levels of society experienced a sense of unity and order centered on the royal family, which resulted in the promotion of stability and unity within the country. The rituals also brought family members together to honor their ancestors, which served as an important function in strengthening family ties and promoting unity.
- Modern day significance: Jongmyo's Confucian values and ancestor worship rituals remain an important part of Korean culture. Jongmyo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values to the modern world. It is an important vehicle for disseminating Confucian culture to the modern world, showing how Confucian values and traditions can live on in the modern world.

이돈아

Lee Donah

<시공을 넘어서>는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대표적인 유적인 첨성대를 렌티큘러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원형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자 국보 제31호로 지정된 첨성대가 지닌 과학, 역사, 문화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속에는 첨성대와 함께 우주를 향하는 기하학적 도형이 등장한다. 이는 신라시대 천문학 지식과 공학적 기술의 결합을 대표하는 첨성대의 과학적 업적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주를 향한 도전과 탐구 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낮과 밤의 대조적인 이미지는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람객의 시선 각도에 따라 하늘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은 천문 관측의 중요성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첨성대의 가치를 강조한다. 작가는 첨성대를 통해 과거 인류의 지혜와 업적을 기리고, 현재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한다.

Trajectory Across Time is a lenticular representation of the Cheomseongdae, a representative heritage site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s, a location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November 2000. The artist set out to visually express the scientific,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Cheomseongdae, the world's oldest surviving astronomical observatory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31, while preserving its original form. In *Trajectory Across*, geometric shapes appear alongside Cheomseongdae, facing the universe. This symbolizes the scientific achievements of Cheomseongdae, which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astronomical knowledge and engineering during the Silla Dynasty, as well as the spirit of challenge and exploration toward the universe. The contrasting images of day and night also symbolize the need to inherit and develop the heritage of the past. The image of the sky changes depending on the angle of the viewer's point of view,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stronomical observation and the timeless value of the Cheomseongdae. Through the Cheomseongdae, the artist pays tribute to the wisdom and achievements of humanity's past, reminds us of the values of the present, and offers hope for the future.



시공을 넘어서
Trajectory Across Time
Lenticular still cut



시공을 넘어서
Trajectory Across Time
2024, Lenticular, 100×100cm

경주 역사 유적지구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신라 천도 이후 천 년 동안 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국 고대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는 신라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지표이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632년) 때 건축된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을 관측하여 농사 시기를 정하고, 항해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높이는 약 9m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반부 위에 27단의 돌이 쌓아 올려진 구조이다.

1. 경주 역사유적지구의 역사적 가치

- 신라 천 년의 역사: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신라 천도 이후 천 년 동안 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신라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옛 이름으로는 서라벌이라 불리웠던 이 지역은 신라 통일 이전부터 왕조의 마지막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였다.
- 한국 역사의 중요한 무대: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삼국통일 이후 고려, 조선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이 지역의 유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 다양한 유적 유형: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 신라 시대의 궁궐터인 월지, 최고 학문기관인 국학, 신라 시대의 대표적 산성인 남산신성 등 다양한 유적 유형이 잘 보존되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신라 시대의 신라 사회의 구조, 정치 체제, 교육 제도, 군사 체제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문화적 가치

- 불교 문화의 중심지: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한국 불교 예술과 건축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신라의 불교 미술의 뛰어남을 증명한다. 이는 한국 불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뛰어난 건축 양식: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건축물들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탑은 한국 석탑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으며 황룡사지구와 같은 사찰 유적은 당시의 불교 예술과 건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 전통 예술의 보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 금속 공예, 도자기, 회화 등 다양한 전통 예술 작품들이 남아 있다. 한국의 전통적 미학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3. 보존의 가치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고대 건축물, 조각, 공예품 및 고분 등의 유적들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는 이 지역 유적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Gyeongju Historic Areas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Gyeongju Historic Areas were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00. Gyeongju was the capital of the ancient kingdom Silla for nearly a millennium and is regarded the center of ancient Korean culture.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Silla's histor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Cheomseongdae, the oldest surviving astronomical observatory in Asia,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632). The observator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agriculture and navigation by observing the stars in the sky. It is approximately 9 meters high and consists of 27 layers of stones stacked on top of a base.

1. Historical Value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s

- 1,000 years of Silla: The Gyeongju Historic Areas was the capital of Korea for 1,00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Silla. It is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of the ancient Silla period. Formerly known as Seorabeol, the area was the center of important historical events from before the unification of Silla to the end of the dynasty.
- A key stage in Korean history: The Gyeongju Historic Are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especially during the Goryeo period, when it developed into 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The ruins in the area provide great resources for the study of cultural exchanges that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period, such as evidence of cultural exchanges with Japan and China.
- A variety of ruin types: The Gyeongju Historic Areas is home to a variety of well-preserved ruin types, including Wolji Pond, the site of Donggung Palace during the Silla Dynasty, Gukhak, the top academic institution, and Namsansinseong Fortress, a representative mountain fortress during the Silla Dynasty. These ruins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its political, educational, and military systems during the Silla period.

2. Cultural Values of the Gyeongju Historic Areas

- The heart of Buddhist culture: The Gyeongju Historic Areas symbolize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Bulguksa Temple and Seokguram are the epitome of Buddhist art, demonstrating the excellence of Silla's Buddhist art. The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East Asia.
- Outstanding architectural style: The buildings in the Gyeongju Historic Areas are characterized by their unique architectural style. In particular, the stone pagodas are considered outstanding examples of Korean stone pagodas. The ruins of Buddhist temples in the Hwangnyongsa Belt are a testament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at that time.
- A treasure trove of traditional art: The Gyeongju Historic Areas are filled with a variety of traditional artworks, such as metal artworks, ceramics, and paintings. They are an important medium for conveying traditional Korean aesthetics and cultural values to the present day.

3. The Value of Preservation

The ancient buildings, sculptures, artifacts, and tombs in the Gyeongju Historic Areas are well preserved,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 Its listing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reflects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significance.



경주 역사 유적지구, 첨성대
The Gyeongju Historic Areas,
Cheomseongdae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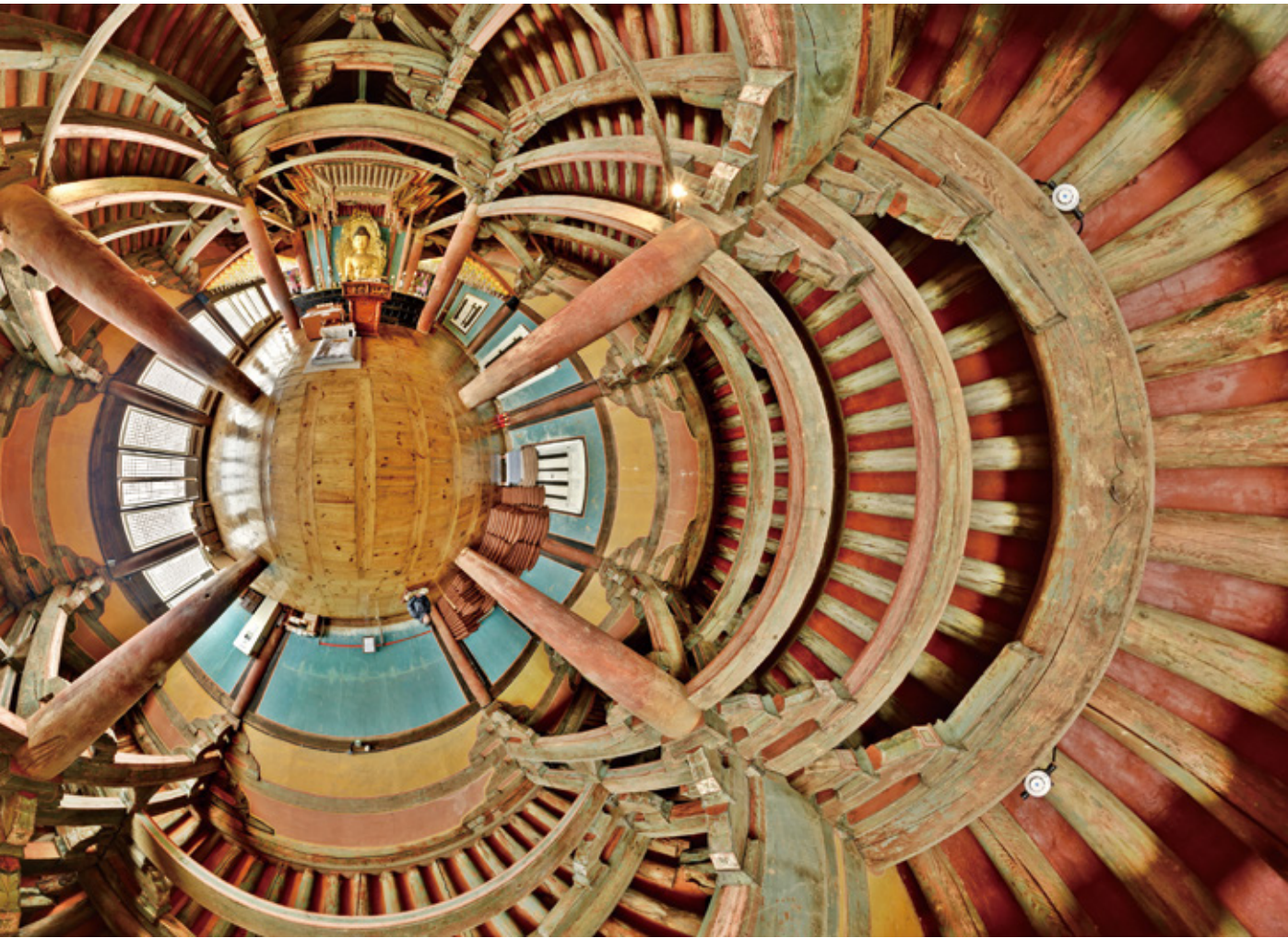
주도양

Zu Doyang

<공쵸 X>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 중 하나인 부석사 무량수전을 깊이 있게 탐구한 사진작품이다. 이 작품은 무량수전 내부를 360도로 촬영한 뒤 70여 장의 사진을 이어붙여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표현했다. 360도 촬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무한한 세계를 창조한다. 이는 불교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무한과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찰 공간이 지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작품 제목인 <공쵸>은 '비어있다'는 뜻으로 카메라를 은유한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담은 영상 이미지는 결국 속이 비어 있는 어두운 방(camera obscura)에서 탄생한다. 카메라가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채우는 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空)'과 연결되어, 사찰의 영적 공간과 불교의 교리를 통해 영원 과 본질을 탐구하려는 작가의 철학적 사색을 드러낸다.

Emptiness X is an in-depth photographic exploration of one of the oldest wooden structures in existence, the Buseoksa Muryangsujeon, a location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8. The work was created by taking 360-degree photographs of the interior of the Muryangsujeon and stitching together over 70 photographs to create one continuous space. The images created by spherical panoramas break down the physical boundaries of space, portraying a world of infinity. The concepts of infinity and continuity, concepts important in Buddhist philosophy, are represented in the work which emphasizes the temple's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The video images that capture the ever-changing world are ultimately created in an empty, dark room(camera obscura). Thus, the title of the work, *Emptiness X*, is a metaphor for the camera. The implication is that the camera is a device that fills an image while itself being hollow. This alludes to the concept of 'emptiness(空)' another important concept in Buddhist philosophy. It reveals the artist's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exploring eternity and essence through the spiritual space of the temple and Buddhist doctrine.





공공 X
Emptiness X
2019, C-print, 100×200cm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부석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은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다시 지어진 무량수전은 현존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뛰어난 건축적 가치

- 오랜 역사를 지닌 목조건축물: 부석사는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중 하나로 긴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하며 한국 목조건축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무량수전의 구조와 양식은 고려시대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독특한 건축 양식: 부석사는 한국 불교 건축의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심포 양식(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고유의 건축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목조 건축의 복잡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 뛰어난 보존 상태: 1376년에 조성되어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고대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뛰어난 예로 평가받으며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2. 산사로서의 중요한 의미

- 한국 불교의 산사 문화를 대표: 부석사는 한국 불교의 산사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산사는 산림에 위치한 사찰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한국 불교의 중요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부석사는 이러한 산사 문화의 뛰어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산림 환경과의 유기적 결합: 부석사는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건물 배치와 정원 조성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자연의 형태를 모방한 건축 양식은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을 실현한 것이다.
- 수행과 교육의 중심지: 부석사는 오랜 역사 동안 학문과 수행 전통을 이어오며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부석사는 수행과 학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종파인 화엄종의 학문과 수행 전통을 이어오는 중요한 사찰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경상북도 영주 Muryangsujeon in Buseoksa Temple, Yeongju, Gyeongsangbuk-do

3.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

- 불교 예술 작품의 보존처: 부석사에는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국보 5점, 보물 7점 등 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된 불화, 조각, 전적 등은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 불교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 부석사는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된 다양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 불교 역사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석사는 한국 불교의 산사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수행과 교육,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현대에도 계속 전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Buseoksa Templ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Buseoksa Temple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8 for its historical, architectural, and cultural significance. Muryangsujeon, which was rebuilt in the second year of King Woo of Goryeo(1376), is highly regarded as the oldest wooden structure in existence in Korea. For the following reasons, Buseoksa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1. Outstanding Architectural Value

- A wooden building with a long history: As one of the oldest wooden buildings in Korea, Buseoksa Temple has remained in its original form for many years, a testament to the outstanding techniques and beauty of Korean wooden architectural style. In particular, the structure and style of Muryangsujeon,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18, exemplifies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of the Goryeo Dynasty.
- Unique architectural style: Buseoksa Temple inherits the traditional style of Korean Buddhist architecture but has its own distinctive features. Built using a unique architectural technique called Jusimpo(where the Gongpo, wooden brackets, are only on the top of the pillars), it highlights the complexity and aesthetic beauty of wooden architecture.
- Excellent preservation: Constructed in 1376, it has retained its original shape over the years. The building is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It is considered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cient architecture, which further enhances its historical value.

2. Significance as a Sansa Temple

- Representative of the Buddhist mountain monastery culture in Korea: Buseoksa Temple is a temple that represents the Sansa culture of Korean Buddhism. Located in forests, Sansa temples are an important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that seeks harmonious coexistence with nature. Buseoksa Temple is considered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Sansa culture.
- Organic integration with the forest environment: Buseoksa is organically

integrat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it, and harmony with nature was prioritized in the building layout and garden design. The architectural style, which mimics natural forms, embodies Buddhist ideas that emphasize the unity of nature and man.

- A center for Learning and Education: Throughout its long history, Buseoks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enter of learning and education,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study and practice. The templ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its study and practice tradition of the Hwaomjong, a sect that emphasizes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through study and practice.

3. Important heritage sites that showcase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Buddhism

- Preservation of Buddhist artworks: Buseoksa Temple is home to many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the Muryangsujeon, National Treasure No. 18, as well as five national treasures and seven treasures. The Buddhist paintings, sculptures, and texts, which are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and treasure-class cultural properties, are an important testament to the high level of Buddhist artwork in Korea.
- Important resources for Buddhist history research: Buseoksa Temple has a wide range of materials accumulated over its long history. These materials provide important clues to the study of Korean Buddhist history and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Buddhist culture.

As a temple representing the Sansa culture of Korean Buddhism, Buseoksa Temple is important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nature, training and education, and the continued succession of the traditions and spirit of Korean Buddhism into the modern era.

진귀원

Jin Gui One

<젬스톤 타워(Gemstone tower)>는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고인들의 독특한 조형성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가는 강화도, 고창 등에서 발견되는 탁자식 고인돌의 모양을 투명 레진으로 캐스팅하여, 돌의 본질적인 특징은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했다. 그리고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여 고인돌 유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실제 돌의 물성을 연질의 합성수지로 변환하여, 돌의 단단함과 차가움을 보드라운 물성으로 재창조하고, 빛의 효과와 색의 조합을 통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작가는 고인돌의 원시적인 조형성, 즉 쌓기 형식을 활용하여 투명 레진으로 만든 다채로운 색상의 돌을 쌓아 올리는 설치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이는 청동기시대 주민의 분묘축조 방법과 원시 종교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인 고인돌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고대의 고인돌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과 고대인의 건축 기술을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예술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emstone Tower is a contemporary artwork that reinterprets the unique sculptural qualities as well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Korean dolmens, which were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December 2000. The artist casted the shapes of table-type dolmens found in Ganghwado and Gochang in transparent resin, transforming them into soft and accessible forms that retai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stones while using brilliant primary colors to express the beauty of the dolmen ruins.

By transform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real stone into a soft synthetic resin, the artist recreates the hardness and coldness of the stone with a soft physicality. He then emphasizes its visual beauty through the effect of light and the combination of colors. The installation is composed of colored stones made of transparent resin that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borrowing the primitive sculptural formality of dolmens. This is a symbolic way of expressing the process and meaning of dolmens, which ar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Bronze Age people's mausoleum construction methods and primitive religions.

Such an approach recreates the sculptural beauty of ancient dolmens and the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 ancients with modern materials and techniques, demonstrating the role that art can play as a cultural vehicle to bridge the past and the present.



젬스톤 타워

Gemstone Tower

2023, Resin, Pigment Ink, Stainless Steel, Variable size



고인돌
Dolmen
2024, Resin, Pigment Ink, 20×28×18cm



Installation view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한국의 고인돌이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에는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있다. 고인돌은 주로 고창, 화순, 강화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되며, 이 지역들은 각각 독특한 고인돌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한반도에서 주로 사용된 묘제 형식으로, 큰 돌을 사용하여 무덤을 만든 거석문화를 대표한다.

1. 역사적 가치

한국 고인돌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 고대 유적의 일부로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종교 및 의례 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고인돌은 약 기원전 2,000~1,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이 고대부터 거석을 사용한 문화가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2. 문화적 가치

- 한국의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 구조를 넘어서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고인돌은 공동체의 지도자와 중요 인물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되거나 제단과 영혼의 집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청동기시대의 사회 구조와 계층 시스템을 반영한다.
- 또한, 고인돌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종교적 신념, 문화적 수준,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또한, 한국의 고인돌은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강화도의 고인돌은 우리나라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으며 고창의 고인돌은 크기가 다양하며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곽형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각 지역 고인돌의 형태와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당시 사회변화와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3. 건축적 및 공학적 가치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석재를 이용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고인돌의 건축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정교함을 보여준다. 크고 무거운 돌을 정확하게 자르고, 운반하며, 적절히 배열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조직적 노력이 필요했다. 이 과정은 고대 사회의 기술적 발전과 공동 작업을 조직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보여준다.

4. 보존의 필요성

- 한국 고인돌 유적지의 대부분은 야외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고인돌 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는 고인돌 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의 고인돌 유적은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강화 지석묘, 인천 Dolmen in Ganghwa, Incheon

Dolmen Ruins of Gochang, Hwasun, and Ganghwa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the Dolmen Ruins of Gochang, Hwasun and Ganghwa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e dolmens in Korea were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00 for a number of important reasons. Dolmens are found in large numbers primarily in the Gochang, Hwasun, and Ganghwa regions, each of which contains unique dolmen sites. Dolmens are a type of burial system us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Bronze Age, representing a megalithic culture that used large stone slabs to construct tombs.

1. Historical Value

Korean dolmens are part of a widespread group of ancient rui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at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social, religious, and ritual life during the Neolithic and Bronze Ages. The Republic of Korea's dolmens are estimated to date from about 2,000 to 1,000 B.C., with about 30,000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dolmens. This shows that the region where the dolmens were found had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at used megaliths since ancient times.

2. Cultural Value

- Korean dolmens are more than just burial structures; they have soci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They were probably used as tombs for community leaders and important figures, or they served various functions as altars and spirit houses, reflecting the social structure and hierarchy of the Bronze Age.
- The various artifacts found around dolmens also provid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ing the lifestyle, religious beliefs, cultural level, and perception of the afterlife of people of that time.
- In addition, dolmens in Korea have unique shapes and characteristics that vary between regions. For example, the Ganghwa-do dolmen is the largest table-type dolmen in Korea. The Gochang dolmens vary in size and are distributed in a variety of formats, including table, checkerboard, and ground stone outlines. These features are important evidence of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society at that time and the exchange between reg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hapes and features of the dolmens in each region, we can trace the social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time.

3.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Value

Korean dolmens boast a unique architectural style that utilizes huge stone slabs. In particular, table-type dolmens have a unique shape that is hard to fi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is is important evidence to the exceptional architectural skills and aesthetic sense of the Korean Bronze Age people. The construction of dolmens shows a level of sophistication that goes beyond mere technology. The high level of skill and organizational effort required to accurately cut, transport, and properly arrange the large, heavy stones. This process reveals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ancient societies and the social structures that allowed them to organize collaborative work.

4. Preservation Needs

- Most of the dolmen sites in Korea are located outdoors and are at risk of being damaged or destroy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over the year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olmen sites is a very important task. Since their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olmen sites has been strengthened.
- Korean dolmen sites contribute to the world's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richness of Korean culture and are an important sour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Korean Bronze Age society.

이명호

Lee Myounggho

<문화유산 #3_서장대>는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내 위치한 서장대를 표현한 작품이다. 서장대 뒤에 거대한 흰색 천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서장대의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대상으로 재해석하고, 그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흰 캔버스를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서장대는 그 자체의 건축적 구조, 비례, 공간구성 등의 미적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연출은 서장대를 단순한 군사 시설로만 인식하는 통상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감상하도록 관람객을 유도한다. 이 작품은 서장대의 건축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고정된 역사적 해석을 넘어서서 건축물 자체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창작활동이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Heritage #3_Seojangdae is a representation of Seojangdae, located in Suwon Hwaseong Fortress, a location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7. The work was created by taking photographs in front of a giant white cloth installed behind Seojangdae. Through this technique, the artis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image of Seojangdae, reinterpreting it as a new visual object, giving it new meaning. By placing it on a white canvas, the aesthetic value of the monument, including its architectural structure, proportions, and spatial organization, becomes more apparent. This arrangement invites the viewer to go beyond the usual perception of Seojangdae as a mere military installation and appreciate it as an independent work of art. This work highlights the architectural, artistic, and historical value of Seojangdae, and rediscovers the aesthetic and cultural value of the building itself beyond its fixed historical interpretations. It provides visitors with a new appreci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and reminds them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3_서장대
Heritage #3_Seojangdae
2015,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104×124cm



작업 전경: 문화유산 #3_서장대_1~10
Work View: Heritage #3_Seojangdae_1~10
2015,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14.5×20.5cm each







세계유산 수원화성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수원화성은 1794년 조선 정조에 의해 축조된 산성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화성은 완벽하게 보존된 성곽과 과학적인 건축기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축조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수원화성은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축조되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 올리고 내측은 흙을 돋우어 메우는 독창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성곽 곳곳에는 총포 발사 후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실전적인 방어 기능을 고려한 과학적인 건축기술을 보여준다. 특히,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방어 시스템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1. 서장대: 수원화성의 방어 중추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서쪽 성벽 위에 위치한 장대(장군이 군대를 지휘하는 곳)로, 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장대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2. 과학적 건축 기술: 서장대의 특징

석축으로 이루어진 서장대에는 총 6개의 칸이 있으며, 각 칸에는 총안을 마련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서장대 아래에는 총포 발사 후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실전적인 방어 기능을 고려한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3. 독창적인 디자인: 서장대의 예술적 가치

서장대는 단순한 방어 시설을 넘어,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서장대의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로 되어 있으며, 곡선 지붕선은 우아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또한, 서장대 주변에는 화려한 조각과 문양이 새겨진 석벽이 마련되어 있어, 건축적 예술 가치를 더욱 높인다.

4. 서장대가 보여주는 수원화성의 가치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방어 체계와 과학적 건축 기술, 독창적인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또한, 서장대는 조선 시대의 군사 전략과 건축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배경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Suwon Hwaseong, Suwon, Gyeonggi-do

Suwon Hwaseong Fortress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Suwon Fortres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Suwon Hwaseong Fortress was built by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in 1794 and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7. Suwon Hwaseong Fortress is known for its perfectly preserved castle walls, scientific construction techniques, and original design. More than 200 years after its construction, most of its facilities are still almost perfectly preserved, which is very rare in the world. Suwon Hwaseong Fortress was built using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vailable at that time. The fortress walls were built uniquely, with only the outer walls piled up and the inner walls filled in with earth. In addition, the fortress is equipped with passages to vent the smoke from the firing of guns, showing the scientific architecture that was designed for practical defense. Seojangdae, in particular,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shows the defense system and symbolism of Suwon Hwaseong Fortress.

1. Seojangdae: Suwon Hwaseong's Defensive Backbone

Seojangdae is a command post (where a general commands his troops) located on the western wall of Suwon Fortres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fense of the fortress. Its strategic location provides a bird's eye view of the fortress walls below.

2. Building Science: Features of Seojangdae

The stone pillar has six compartments, each of which is designed to house a gun emplacement for attacking the enemy. In addition, there is a passage under the gun emplacement to ventilate the smoke produced after firing the guns, demonstrating the scientific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considered the practical defense function.

3. Ingenious Design: The Artistic Value of Seojangdae

More than a defensive structure, the Seojangdae is considered a magnificent architectural structure. The roof of Seojangdae is octagonal in shape, and the curved roofline creates a sense of elegance and stability. In addition, the stone walls around the Seojangdae are carved with colorful carvings and patterns, further enhancing its architectural and artistic value.

4. The Value of Suwon Hwaseong Fortress represented in Seojangdae

Seojangdae is a representative building structure that shows the defense system, scientific construction technology, and original design of Suwon Hwaseong Fortress. It is also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military strategy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Joseon Dynasty. As such, Seojangdae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and value of Suwon Hwaseong's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무형문화유산

일라이 리드	제주 해녀 문화
이돈아	강강술래
황인선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i Reed	Jeju Haenyeo Culture
Lee Donah	Ganggangsullae
Hwang Insohn	Kimjang Culture: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Korea

일라이 리드

Eli Reed

<Jeju Haenyeo 2018>는 매그넘의 정회원인 일라이 리드가 2018년 제주를 방문하여 촬영한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이 작품은 2016년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의 모습을 통해 해산물 채취 전통을 보여준다. 사진에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다이빙해온 해녀들의 일상생활이 담겨있다. 80세 이상의 해녀들이 여전히 산소 탱크 없이 수심 10m까지 다이빙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은 역사적 기록과 현실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가는 평균 연령 70세 안팎의 해녀들이 물을 헤쳐나가는 현장을 추적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속 해녀들은 단순히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강인함, 집중력, 협동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제주 해녀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한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녀평등의 예시이다.

Jeju Haenyeo 2018 is a collection of documentary photographs taken by Magnum member Eli Reed during his visit to the island Jeju in 2018. The work portrays the seafood harvesting tradition of Jeju Haenyeo, inscrib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November 2016. The images showcase the daily lives of the Jeju Haenyeo, diving each day into the coast of Jeju to collect seafood by hand. The images document women past their 80s plunging themselves into the sea without oxygen tanks to the depths of 10 meters and more, conveying the convergence of reality with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past. The artist captures the women with an age average of 70 or so gliding across the waters of Jeju.

The Haenyo portrayed in the works are doing more than merely collecting seafood. They show a life of standing tall against the harsh currents of nature, and display the strength, focus, and collaborative spirit of femininity. The Jeju Haenyeos who engage in economic activity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exemplify gender equality in a male-dominated society, showing women in the workplace, achieving economic in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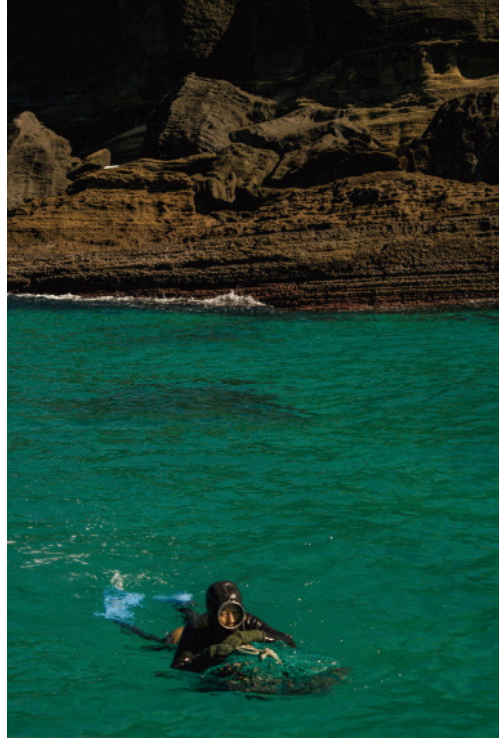
제주 해녀 2018-채집한 문어를 들고 있는 해녀
Jeju Haenyeo 2018-Holds a Octopus catch from the harvest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60×40cm



제주 해녀 2018-그녀의 주름진 얼굴. 바다로 들어가는 배를 기다리며
Jeju Haenyeo 2018-Her wrinkled face. Waiting for a boat to enter the sea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60×40cm



제주 해녀 2018-채집물을 가지고 오는 해녀
Jeju Haenyeo 2018-Brings in harvest in the sea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60×90cm



제주 해녀 2018-채집한 해물들을 가지고 바다에서 배로 돌아가는 해녀
Jeju Haenyeo 2018-Returning to boat with harvested food from the sea
Archival Inkjet Print on Paper, 60×90cm





Installation view

제주 해녀 문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은 이 전통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때문이다. 2016년에 유네스코 목록에 포함된 해녀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 문화적 독창성과 심층성

- 여성 중심의 전통 다이빙 활동: 제주 해녀 문화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전통 다이빙 활동이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일반적인 다른 문화권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 뛰어난 다이빙 기술: 제주 해녀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수심 평균 5-10m 까지 자유롭게 다이빙하며 해산물을 채취한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기계화되거나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달된 해산물 채취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 다양한 의식과 신앙: 해녀들은 물질(물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기 전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녀 문화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영적 가치를 지닌 것을 보여준다.

2. 사회적 가치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제주 해녀 문화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 공동체 의식 형성: 해녀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통을 만들고, 공동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역사적 가치

- 오랜 역사와 전통: 제주 해녀 문화는 약 17세기부터(1629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이어져 내려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
-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제주 해녀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으며, 해녀 문화는 제주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제주 해녀 Jeju Haenyeo

4. 보존의 필요성

- 현대화와 산업화의 위협: 해녀 문화는 현대화, 산업화 및 젊은 세대의 전통적 직업에 대한 관심 감소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기계화된 어업 방식의 도입, 해양 환경 오염, 젊은 세대의 해녀 활동 참여 감소는 제주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 유네스코 등재의 중요성: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는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보존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 문화가 후대에 전달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Jeju Haenyeo Cultur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Jeju Haenyeo Cultur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Jeju Haenyeo Culture was inscribed o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recognition of the unique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value of this tradition and the need to preserve it.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Haenyeo culture inscribed on the UNESCO list in 2016.

1. Cultural Ingenuity and Depth

- Female dominated traditional diving activity: Jeju Haenyeo culture is a traditional diving activity practiced primarily by women. This is a unique feature that is rarely the case in other cultures where male-dominated societies are the norm.
- Exceptional diving skills: Jeju Haenyeo divers are free divers. They dive without the aid of oxygen masks to an average depth of 5-10 meters to collect seafood. This activity has great cultural value, especially as it is carried out in a traditional way without the use of mechanized or modern equipment.
Through years of experience and know-how, they have developed world-class techniques for harvesting seafood.
- Various rituals and beliefs: Before harvesting seafood from the water, Haenyeo women perform various rituals and beliefs, such as offering sacrifices to the dragon king and praying for safety and abundance. This is an indication that Haenyeo culture is more than just an economic activity, but also has spiritual values.

2. Social Value

- Improving the social status of women: Jeju Haenyeo culture has provided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e their social status. It ha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livelihood for women who grow up in difficult family circumstances and has contributed to ensuring their dignity as members of society.
- Creating a sense of community: Haenyeo builds a strong sense of community through working together, helping each other, and doing the work. This creates a tradition of respect and care for each othe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3. Historical Value

- Long history and tradition: Jeju's Haenyeo culture of Jeju has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that dates back to the 17th century(1629). It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shows the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 Contribu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Jeju's Haenyeo culture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seafood harvested by Haenyeo has become an important food resource for local residents, and the Haenyeo culture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unique identity of the Jeju region.

4. Preservation Needs

- Threat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Jeju's Haenyeo culture is in danger of gradually disappearing due to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a declining interest in the traditional profession among younger generations. The introduction of mechanized fishing method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declining participation of younger generations in Haenyeo activities are factors that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Jeju's Haenyeo culture.
- The significance of UNESCO's inscription: The inscription on the UNESCO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value of Jeju's Haenyeo culture and a catalyst for preservation efforts. It has brough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Jeju Haenyeo culture to future generations.

이돈아

Lee Donah

<나라 Wingspan>는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렌티큘러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강강술래는 음력 8월, 밝은 보름달 아래 여성들이 모여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을 축하하며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민속 의례다. 작가는 한국의 전통 춤을 현대기법인 렌티큘러로 재현하여, 강강술래의 역동성과 참여자들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렌티큘러 기법은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제공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더하고,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는 강강술래의 춤과 노래가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강강술래를 상징하는 모란꽃을 강렬한 붉은 색상으로 표현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모란꽃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꽃이며, 부와 행복,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작품은 강강술래의 축제적인 기운과 리듬감을 현대 예술로 풀어내며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표현한다.

Wingspan is a lenticular representation of Ganggangsullae, a traditional Korean folk dance inscrib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09. Ganggangsullae is a folk ritual where women gather under a bright full moon in August of the lunar calendar to either pray for a good harvest or celebrate the harvest, while dancing hand in hand. The artist recreates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using the contemporary lenticular technique, emphasizing the dynamism of the dance and the community spirit of the participants.

The lenticular technique is characterized by shape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viewer's movements, creating a three-dimensional illusion that brings the work to life and creates a sense of immersion. This symbolizes the fact that Ganggangsullae's dancing and singing is a moving art form. Here the peony flower, which represents wealth, happiness, and health in Korean culture, was used to represent Ganggangsullae. Its intense red color also creates a festive atmosphere. This work translates the festive spirit and rhythm of the festival into contemporary art, while expressing the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for the global spread of K-culture.



나라
Wingspan
Lenticular still cut



나래
Wingspan
2024, Lenticular, 100×100cm

강강술래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강강술래가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배경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문화

강강술래는 한국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년과 풍작을 기원하는 민속 의례이다. 음력 8월 중순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여성들이 모여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합창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은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춘다. 강강술래는 단순한 춤과 노래가 아닌,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유의 노래, 춤, 의복 등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한다.

2.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기능

강강술래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민속놀이로, 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마을의 화합과 연대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춤추는 과정에서 강한 공동체 결속력을 형성한다. 강강술래는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을 위한 길운을 빌며, 질병이나 액운을 막는 의식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서 활동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춤과 노래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이러한 전통은 여성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3. 노래와 춤이 결합된 민속놀이

강강술래는 춤과 노래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문화유산이다. 이 놀이는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여 밝은 보름달 아래 모여 서로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노래는 강강술래의 중심적인 요소로, 한 사람이 솔리스트 역할을 하여 주요 노래를 부르고, 다른 참여자들이 후렴을 담당하여 화음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멜로디와 리듬은 강강술래를 더욱 풍부하고 역동적인 문화 경험으로 만든다. 춤은 노래를 배경으로 참여자들이 원을 그리며 수행하는 동작에서 나타난다. 이 춤은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리듬과 동작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적인 일체감을 형성한다. 강강술래는 춤과 노래가 결합된 통합적 예술 형태로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Ganggangsulla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Ganggangsulla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One of the main reasons why Ganggangsullae was inscribed o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09 is that it exemplifies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ommunity spirit of Korea and is recognized worldwide for its cultural value. The following are a list of such important values that Ganggangsullae represents.

1. The Ingenious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Ganggangsullae is a folk ritual of praying for good harvest that was widely practiced in the southwest of Korea. It is usually performed in mid-August of the lunar calendar, and on the night of a bright full moon, village women gather, hold hands, and dance in a circle, with one person leading the chorus of 'Ganggangsullae' while the others sing along. The meaning of Ganggangsullae is not merely a dance and song, but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with a long history and rich cultural significance. It has been part of Korean culture for centuries and contributes to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Korea's colorful cul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its unique songs, dances, and clothing.

2. Strengthening Community and Social Functioning

As a folk dance performed mainly by women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Ganggangsulla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women's sense of community and promoting unity and solidarity in the village. By dancing in a circle with their hands held together, the women create a strong sense of community cohesion. Ganggangsullae has been practiced in the form of rituals to pray for good harvest, to invoke good fortune for the village, and to ward off sickness and misfortune.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active and important role that women played at the center of the village community beyond their role in the home. This tradition of praying for the well-being and prosperity of the village through dance and song is a great example of how female-led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 to community development.

3. Folk Play Combining Song and Dance

Ganggangsullae, which combines dance and song, is a unique form of cultural heritage. It is mainly performed by women, who gather under a bright full moon, holding hands, forming a circle, singing, and dancing. More than mere entertainment, these activities have a deep meaning of praying for the well-being of the village and a good harvest. Singing is a central element of Ganggangsullae, with one person acting as the soloist and singing the main song, while others sing the chorus to create harmony. The melodies and rhythms created in this process make Ganggangsullae a rich and dynamic cultural experience. The dance manifests itself in the movements that the participants perform in a circle with the song as a backdrop. The dance creates a sense of collective unity as all participants share the same rhythms and movements. As an integrated art form that combines dance and song, Ganggangsullae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It is recognized a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at reflects the Korean way of life, social relationships, and harmonious interaction with nature.



강강술래 Ganggangsullae

황인선

Hwang Insön

<기념비적 김치>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김장 문화를 기념하며, 김치를 예술적 매체로서 조명한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 아닌, 한문화 정체성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김치는 한국 전통농경사회에서 자연의 순환과 긴밀히 연결된 식문화의 일부로, 세대 간 전승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김치의 크기를 거대하게 키워 천장에 매달린 형태로 설치하여 김치의 상징성을 강화했다. 한지의 구김과 특성을 이용한 한지 캐스팅 기법과 염료를

사용하여 실제 김치의 질감과 색감을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미각과 후각에 호소하는 김치의 특성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환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김치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일상 속 김치와 다르게 거대화되고 예술화된 김치는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김치는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 문화적 유산임을 인식하게 된다.

Experimenting with Kimchi as an artistic medium, *The Monumental Kimchi* is an installation that celebrates Korean Kimchi culture, which was inscribed o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December 2013. The artist interprets Kimchi as a symbol of Korean cultural identity, not just a food product. Kimchi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part of a food culture that is closely linked to the cycle of nature in traditional Korean agricultural society. By enlarging the size of Kimchi, a daily food for Koreans, and hanging it from the ceiling, the artist reinforces the symbolism of Kimchi. To depict the texture of the Kimchi, the artist uses the characteristics of Hanji

that make it easily crumpled. Hwang then dyes the Kimchi-shaped Hanji casting to reproduce the reality of real Kimchi in texture and color. In this way, he creates a synesthetic experience. In the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Kimchi that appeal to the senses of taste and smell are transformed into visual images, making it possible to feel the taste and texture of Kimchi by sight alone. Unlike the everyday Kimchi that is transformed into an artistic form, this enlarged Kimchi installation creates a strong visual impact and makes us reevaluate its value. As a result, Korean viewers are reminded that Kimchi is a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김치 Book
Kimchi Book
2024(Sample, Original 2004) ,Pop-up Book
14.5×21×0.5cm





김치 행진IV

The March of Kimchi IV

2024, Korean Paper Casting, Ink, Acrylic on Korean paper

26.5×14.5×16.7(single size), Variable size



기념비적 김치
The Monumental Kimchi
2023, Korean Paper Casting, Dyes dripping on Korean Paper
210×118×120cm

한국의 김장 문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한국의 김장 문화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과 가치관, 공동체 의식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

김장 문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족 및 공동체 행사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장하는 과정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함께 김장을 하고, 완성된 김치를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 **공동 작업을 통한 협동심 함양**

김장은 대개 가족 단위로 이뤄진다.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김장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한다. 김장은 힘든 과정이지만, 동시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어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

- **공동체 참여와 소통**

지역 사회에서 김장은 이웃이 함께 모여 진행되는 공동체 행사이다. 이웃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김장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돕고, 김치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한다.

- **나눔과 연대**

김장을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 나눔의 문화는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이웃 간의 지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어려운 가구나 노약자들을 위해 김장을 도와주는 풍습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나눔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장려한다.

2. 전통 지식과 기술 계승

김장 문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대표하며, 전통 지식과 기술의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전통 지식과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 **전통 지식의 전수**

김장 문화는 재료 선택에서부터 조리법, 보관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지식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이다. 김치의 맛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재료 선택은 지역별, 계절별에 따른 재료의 이해가 필요하다. 배추 절이기, 양념 조리법 등은 수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세대 간에 구전되며,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된다.

- 세대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습득

김장은 대체로 가족 단위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노년층으로부터 김치를 제조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기술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3. 자원의 효율적 사용

김장은 계절에 따라 대량의 김치를 준비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탁월한 예다. 이 과정은 자원의 최적화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기적 자원 활용

김장은 계절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 대량의 김치를 준비하고, 발효 저장함으로써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 신선한 채소가 부족할 수 있는 겨울철에도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장기 보존을 통한 식품 낭비 감소

김장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몇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이는 식품 보존 기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장기 보존이 가능함으로써 식품 낭비를 줄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김장 김치 Kimchi

Kimjang Culture: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Korea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Inscription of Kimchi Cultur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ecember 2013, Korea's Kimchi culture was inscribed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preserves and transmits the traditional life, values, and sense of community of the Korean people.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implications of the inscription of Kimjang cultur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1.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Bonds

Kimjang culture is a typical Korean family and community even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rengthening of family and community bonds. The process of making Kimchi is closely linked to Korean identity and has great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Kimjang, the process of making and sharing Kimchi together brings joy and reinforces the sense of belonging as part of a family and community.

- **Fostering a sense of cooperation through collaboration**

Kimjang is usually a family affair. Each member of the family plays a role in the process, working together pickling the cabbage, preparing the seasoning, and marinating the kimchi. Making Kimchi is a laborious process, but it is also a fun and satisfying experience to have with family members. Recognizing and appreciating each other's hard work also helps to strengthen family bonds.

-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a community, Kimjang is a community event that brings neighbors together. It promote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neighbors and strengthens community cohesion. Through the process, community members can help each other, share Kimchi, and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 **Sharing and solidarity**

The Kimchi produced by Kimjang is often shared with neighbors. The culture of sharing creates a sense of social solidarity that generates support and care among neighbors. In particular, the custom of helping make Kimchi for families in need or for the elderly is a prime example of the warmth of

communal sharing. Indeed, sharing reinforces our sense of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as members of a community and fosters a culture of caring for one another.

2. Passing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a representative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Kimjang cultur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ways in which Kimjang culture contributes to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Kimjang is a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traditional knowledge, from ingredient selection to recipes to storage methods. Ingredient sel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flavor and quality of Kimchi and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regional and seasonal ingredients. Pickling cabbage and seasoning recipes are based on cooking techniqu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centuries. The knowledge conveyed in these processes is passed down oral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s naturally passed on within families and communities.

- **Skill acquisition through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Kimjang is often practiced together in a family or community. During this process, the younger generation learns from the older generation how to make and preserve Kimchi. This collaboration not only transfers knowledge,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ntergenerational bonds within families and fosters an attitude of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traditional skills.

3. Efficient use of resources

Kimchi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storing large quantities of Kimchi according to the season. This process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ptimizing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 **Utilizing seasonal resources**

Kimchi is a great way to seasonalize and maintain a healthy diet. During the winter months, when fresh vegetables are hard to come by, you can prepare large batches of Kimchi, ferment and store it to last you through the winter. It's a great way to get vitamins and essential nutrients during the winter months, when fresh vegetables can be scarce.

- **Reducing food waste through long-term preservation**

Kimjang Kimchi can be stored for months through the fermentation process, which can be considered a form of food preservation. Its long-term storage reduces food waste and allows for efficient use of resources, as it is always available when needed.

세계기록유산

황인선

훈민정음

김용관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팔만대장경)

Memory of the World

Hwang Insön

Hunminjeongeum

Kim Yongkwan

The Goryeo Daejanggyeong Tablets and
Jegyongpan(Palman Daejanggyeong)

세계유산

김용관

해인사 장경판전

World Heritage Sites

Kim Yongkwan

Janggyeong Panjeon in Haeinsa Temple

황인선

Hwang Insön

<밥풀 훈민정음>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과 밥이라는 식재료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훈민정음 해례본 글자 이미지를 차용한 모양 틀에 맞추어 핀셋을 사용해 밥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열하고, 이를 다시 떼내는 세심하고 공들인 수공예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가치인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통해 민족 문화와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훈민정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고유의 문자이다.

작가는 밥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루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예술로 표현했다.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의 정성과 노력은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조상들의 꿈과 염원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한국인의 밥을 사용하여 훈민정음의 문자를 형상화함으로써, 한글의 보편적 가치와 한국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detail cut

Boiled Rice Hunminjeongeum expresses Korean identity and tradition in a modern and creative way through the ingredients of rice and Hunminjeongeum, which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s Documentary Heritage List in October 1997. The artist uses tweezers to carefully arrange the grains of rice in a mold borrowed from the Hunminjeongeum Haerye text, and then scoops them out again in a delicate and painstaking process by hand. The work is completed through a meticulous, hand-crafted process that emphasizes the egalitarianism at the core of Hunminjeongeum's creation that ensures everyone an opportunity to read and write. The work also connects Korean national culture with universal values through the

staple food of Koreans, rice. Hunminjeongeum is a unique Korean script created to enable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status, to read and write.

By the delicate placement of each grain of rice, the artist expresses the outstanding values behind the creation of the Hunminjeongeum through art. The sincerity and effort the artist puts into each grain of rice symbolizes the dreams and aspirations of our ancestors who created the Hunminjeongeum. By using Korean rice to create the characters of the Hunminjeongeum, the work visually emphasize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al value of Hangeul and the lives of Koreans.





밥풀 훈민정음
Boiled Rice Hunminjeongeum
2022, Boiled rice casting, Monotype, Acrylic on Canvas,
53×73×3.5cm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및 가치

훈민정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등재 배경과 의미,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역사적 가치

- **한국 역사에서의 독창적 창조**

훈민정음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에 의해 창조된 문자 체계로, 세계 언어사에서 보기 드물게 새로운 원리와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문자이다. 이는 언어학적으로도 혁신적인 사건이며, 국가 차원에서 언어의 표준화와 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특별한 사례이다.

- **한국 문화와 언어의 보존 및 발전**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문법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한글은 한국 문화와 학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과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으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훈민정음은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인류의 기록유산이다.

2. 교육적 가치

- **교육의 접근성 향상**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훈민정음은 한국어 학습 및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서 평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평민들에게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교육의 표준화와 지식 전달**

훈민정음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지식의 표준화된 보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 언어 교육의 혁신

훈민정음의 창제는 언어 교육 방법론에 혁신을 가져왔다. 한글의 문자 체계는 학습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언어 습득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3. 문화적 가치

- 한국 문화의 정체성 강화

훈민정음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이 문자 체계는 한국인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 한국 문화의 접근성과 보급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 문화와 문학을 보다 널리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의 문학, 역사, 철학 등이 문서화되고 보존될 수 있었으며,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 교류 촉진

훈민정음은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문자이다. 한글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훈민정음(해례본) Hunminjeongeum(Haeryeobon)

Hunminjeongeum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UNESCO's Inclusion of the Hunminjeongeum in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List

Hunminjeongeum manuscript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s Documentary Heritage List in 1997 in recognition of its histor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 The background,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inscription is as follows.

1. Historical Value

- **A unique creation in the history of Korea**

Hunminjeongeum is the Korean writing system created by Sejong the Great in 1443. As a writing system based on new principles and scientific approaches, it is a rare example in the history of world languages. It was a linguistic breakthrough and a unique example of a system developed on a national level as an attempt to standardize language and popularize education.

-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now known as Hangeu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cording the correct pronunciation and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identity. Hangeul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scientific work and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daily lives of Koreans.

- **A documentary heritage explaining the creation and use of Hangeul**

Hunminjeongeum Haerye is a manuscript that details the process and principles of creating the Korean alphabet, Hangeul. Hangeul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cientific and easy-to-learn scripts in the world, and the Hunminjeongeum is documentary heritage of mankind that proves its excellence.

2. Educational Value

- **Improving access to education**

Hunminjeongeum is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riting system that is easy for everyone to learn and use. As a result,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Before the creation of Hangeul, Chinese characters were of common use. Chinese characters, however, were difficult to learn and limited the ability of commoners to read and write. The creation of the Hunminjeongeum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radicating illiteracy and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ommoners b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read and write.

- **Standardizing education and passing on knowledge**

By providing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riting system accurately representing the Korean language, Hunminjeongeu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andardizing education. It enabled accurate delivery of educational content and standardize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mproved the quality of education.

- **Innovating language education**

The creation of the Hunminjeongeum revolutionized language teaching methods. The writing system was designed to make it easier and faster for learners to master the Korean language, and it greatly improved the efficiency of language teaching. It made language acquisition less burdensome for both educators and learners, while still allowing for effective learning.

3. Cultural Values

- **Strengthening Korean cultural identity**

Hangeul has become an important cultural symbol that reinforces Korean identity. The writing system has been utilized as a tool for Koreans to be proud of their language and culture, and to communicate the value of Korean culture to the world.

- **Accessibility and dissemination of Korean culture**

The creation of Hangeul made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more widely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Korea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could be documented and preserved,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the universal values of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 **Promoting respect and exchange of cultural diversity**

Hangeul is also a very useful script for foreigners leaning and using the Korean language. It enables foreigner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communicate with Korea.

김용관

Kim Yongkwan

<해인사 대장경판>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의 고요하고 신성한 내부를 8x10인치 대형 원판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작품이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팔만대장경이 사선으로 배치된 시점을 통해, 공간감과 깊이감을 드러내며, 기교 없이도 그 장엄함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진 속 장경판전은 고려시대 활발했던 불교 문화의 장엄함과 문헌의 방대함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던 장경판전의 모습을 이처럼 섬세하게 포착한 것은 자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이 작품은 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경판전의 특별한 구조와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간 여행을 체험하게 만든다.

Taken with a large 8x10 inch original slide film, *Haeinsa Tripika Koreana* is a photographic work that captures the serene and sacred interior of Janggyeong Panjeon, National Treasure No. 52, which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5. The light filtering through the grating and the diagonal positioning of the Palman Daejanggyeong (Eighty-Thousand Tripika) reveal a sense of space and depth, and the majesty of the scene is delicately documented without any special camerawork. The photographs vividly capture the majesty of Buddhist culture and the vastness of the literature that flourish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delicate record of Janggyeong Panjeon, which has not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s of great artistic and material value. In addition to its aesthetic value, the work is also an important means of publicizing the cultural, historical, and educational value of the Janggyeong Panjeon and the Palman Daejanggyeong Buddhist scriptures. The unique structure and mysterious atmosphere of the Janggyeong Panjeon invites visitors to experience a journey through time, rather than a mere viewing.



해인사 대장경판 2023
Haeinsa Tripitaka Koreana 2023
2023, Pigment Print, 122×165cm





해인사 대장경판 2023
Haeinsa Tripitaka Koreana 2023
2023, Pigment Print, 122×165cm each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세계기록유산 선정 배경 및 가치

장경판전(국보 제52호)은 한국의 해인사 내에 위치하며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13세기에 제작된 고려대장경 81,352장의 목판을 보관하는 단층 목조건축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팔만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음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주요 배경이다.

1. 문화적 가치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간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불교 경전 모음집이다. 총 81,352장의 목판에 약 5천2백만 자가 적혀 있으며, 불교 교리,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며, 당시 고려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경전들은 고려 시대에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호경으로서, 불교의 보호를 받아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장경판전은 한국 불교의 신앙심과 정신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 자체도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유산으로, 불교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상징한다.

2. 역사적 가치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중요성은 팔만대장경 목판의 제작 배경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1237년부터 약 12년의 기간 동안 제작된 이 목판들은 고려가 겪었던 외침에 대한 대응이자, 국난 극복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목판들은 당시의 불교적, 학문적 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또한 장경판전은 자연 환기와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려시대 목판 건축기술의 뛰어난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3. 교육적 가치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집대성일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과학, 철학, 역사, 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장경판전은 학문과 교육의 보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목판들은 고대 인쇄술의 발달과 보존 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재로 활용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쇄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와 교육에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합천
Janggyeong Panjeon in Haeinsa Temple, Hapcheon, Gyeongsangnam-do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경상남도 합천
Haeinsa Tripika Koreana, Hapcheon, Gyeongsangnam-do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UNESCO's Inclusion of Janggyeong Panje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Palman Daejanggyeong in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List

Janggyeong Panjeon(National Treasure No. 52) is a single-story wooden structure located in Haeinsa,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houses 81,352 wooden tablets of the 13th-century Goryeo Daejanggyeong, also known as the Palman Daejanggyeong(Haeinsa Tripika Koreana). It wa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5. The Goryeo Daejanggyeong Tablets and Jegyeongpan(Palman Daejanggyeong) were inscrib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07.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signation of Haeinsa Janggyeong Panjeon and Goryeo Daejanggyeong and Jegyeongpan as World Heritage Sites.

1. Cultural Value

The Goryeo Daejanggyeong and Jegyeongpan Buddhist Scriptures are the world's largest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produced over a 12-year period from 1237 to 1248. With a total of 81,352 wooden tablets and approximately 52 million characters, they cover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Buddhist doctrine, history, philosophy, and art, and are an important source for the cultural development of Goryeo society at that time. The scriptures were created under the protection of Buddhism during the Goryeo Dynasty as a guardian spirit to protect the country from Mongolian invasions. As a result, the Janggyeong Panjeon serves as a spiritual and devotional center for Korean Buddhism.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but also the Janggyeong Panjeon itself, which houses them, is a cultural heritage that is fundamental to Korean Buddhism and symbolizes the development of Buddhist culture and art.

2. Historical Valu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Janggyeong Panjeon and the Palman Daejanggyeong is closely related to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the Palman Daejanggyeong woodblocks. Produced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12 years starting in 1237, the woodblocks were a response

to the external aggression that Goryeo was experiencing and are significant as a historical record of overcoming a national crisis. As a compilation of the Buddhist and academic knowledge of that era, the woodblocks also act as important historical proof that impacts all East-Asian cultures. In addition, Janggyeong Panjeon has a unique structure for natural ventilation and temperature/humidity control, making it an important example of the outstanding development of wood based architectural technology during the Goryeo Dynasty.

3. Educational Value

Palman Daejanggyeong is not only a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but also contains knowledge from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philosophy, history, literature, and medicine during the Goryeo Dynasty. As such, the Janggyeong Pa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treasure trove of scholarship and education. In particular, the woodblocks are an important source for studying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ancient printing technology. They are also highly valuable for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rinting culture worldwide.

1955-2023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Korea's UNESCO-listed Cultural Heritage on a Map

세계유산(16건)

World Heritage Sites

석굴암과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종묘 서울특별시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합천군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창덕궁 서울특별시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전라북도 고창군 등 총 3개 지역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조선왕릉 경기도 구리시 등 총 18개 지역 가야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한국의 갯벌 충청남도 서천 등 총 4개 지역
 백제역사유적지구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경상남도 양산시 등 총 7개 지역
 한국의 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등 총 9개 지역

고구려 고분군 북한 개성역사유적지구 북한

무형문화유산(22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서울특별시
 판소리 전라북도 일원(동편제), 전라남도 일원(서편제),
 경기도, 충청남북도 일원(중고제)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 제주도
 강강술래 전라남도 처용무 서울특별시
 한산 모시짜기 충청남도 서천군 제주해녀문화 제주도

영산재 | 남사당놀이 | 가곡, 국악 관현악 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 |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택견, 한국의 전통무술 | 줄타기 |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연등회 | 한국의 탈춤 |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농악 | 줄다리기 |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대한민국 전역

북한의 아리랑 북한 북한의 김치만들기 북한

세계기록유산(18건)

Memory of the World

훈민정음(해례본) 서울특별시 조선왕조실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프랑스 승정원일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경상남도 합천군
 조선왕조 의궤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동의보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
 일성록 서울특별시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충청남도 아산시
 새마을 운동 기록물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서울특별시
 한국의 유교책판 경상북도 안동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서울특별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서울특별시 등 3개 지역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4.19혁명기록물(2023) 서울특별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 전라북도 정읍시

무예도보통지 북한

서울권 세계유산

조선왕릉 현인릉	조선왕릉 서삼릉	조선왕릉 의릉	조선왕릉 서오릉
조선왕릉 정릉	조선왕릉 선정릉	조선왕릉 은릉	조선왕릉 동구릉
창덕궁	종묘		

서울권 무형문화유산

저용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

서울권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일성록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국채보상운동기록물	4.19혁명기록물	



작가 약력

강홍구

강홍구(b.1957)는 목포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서울 : 서울,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는 강홍구의 서울》(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 2024), 《무인도와 유인도 - 신안바다II》(사비나미술관, 서울, 2023), 《녹색연구-서울-공터》(원앤제이갤러리, 서울, 2020)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들: 파트너십》(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 서울, 2019), 《떠도는 영상들의 연대기》(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 현대 사진운동1988-1999》(대구미술관, 대구, 2018),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7) 등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김용관

김용관(b.1969)은 1994년 아키라이프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건축 전문출판사 아키라이프(2009)와 건축전문잡지 다큐멘텀(2014)를 창간하여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간 『C3』의 사진기자 및 전속작가(1990-2000), 월간 『공간』의 전속작가(2004-2011)로 장기간 활동하였으며, AIA 뉴욕건축가협회 우수상(1999)을 수상하였다. 개인전 《관계의 기록, 풍경으로의 건축》(DDP, 서울, 2023)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소장처로는 삼성 리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

베르트 할프헤르

베르트 할프헤르(Bernd Halbherr, b.1964)는 독일 울름(Ulm)출신 작가로 뒤셀도르프 예술대학 조형학과에서 클라우스 링케(Klaus Rinke) 교수에게 수학하였다. 2011년부터는 중앙대학교 조형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공 프로젝트 괴핑엔 시립미술관(독일, 2019) 세화미술관(서울, 2018), 사비나미술관(서울, 2015)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은밀하게 황홀하게》(서울역284, 서울, 2015), 《구_체_경 힐링그라운드》(소마미술관, 서울, 2013), 《제주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09)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이돈아

이돈아(b.1967)는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 석사, 미국 SVA, NYU에서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시 좋은 빛 상 수상(2023), 중앙미디어아트 공모전 대상(2022), 최우수작품상(2021), 법무부 장관 표창(2022) 다수 수상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로 국제미디어아트파사드(2023, 황등석산), 아뜰리에 광화(2023,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 《神遊 : From Bronzes to Robots》(후난박물관, 중국, 2023), 《역사의 방향들》(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2021)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장처로 국립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Weltmuseum, 경기도청사, 춘천문화재단 등이 있다.

이명호

이명호(b.1975)는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까만 방, 하얀 방, 그리고 그 사이 혹은 그 너머》(사비나미술관, 서울, 2017), 《사진 행위 프로젝트》(성곡미술관, 서울, 2010), 《The Armory Show 2009》(요시밀로갤러리, 뉴욕, 미국, 2009)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Nirvana》(VDNKh, 모스크바, 러시아, 2016), 《자연, 그 안에 있다》(뮤지엄 산, 원주, 2016), 《실재와 가상의 틈》(우양미술관, 원주, 2015), 《기본적으로 영원히.》(동경도사진미술관, 도쿄, 일본, 2014), 베니스비엔날레《Who is Alice?》(베니스, 이탈리아, 2013), 《침묵의 이미지》(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2) 등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이중근

이중근(b.1972)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였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우遭遇 Close Encounter with Korean Heritage》(아트파크, 서울, 2023), 《카오스모스 Chaosmos》(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21)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예술 입은 한복》(사비나미술관, 서울, 2023) 등의 국내외 기획전을 참가했다. 국립 창동 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 난지 창작스튜디오, 파리 시떼 데자르를 포함하여 런던, LA, 뉴질랜드에서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있었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등이 있다.

일라이 리드

일라이 리드(Eli Reed, b.1946)는 1969년 Newark School of Fine and Industrial Arts를 졸업하고, 198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Nieman Fellow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MAGNUM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I.F. Stone Medal for Journalistic Independence(2021), Lucie Award Achievement in Documentary Photography(2011) 등 다수 수상하였다. 《海=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제주돌문화공원, 제주, 2021), 《On the Road》(Blanton Museum, 오스틴, 미국, 2017)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주도양

주도양(b.1976)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오래되었지만 근원적인 초기 사진의 가능성과 현시대를 담는 현대적인 매체로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 전시 《Landscape-X-ray》(한가람미술관, 서울, 2002) 전시에서 사진의 원근법을 해체한 방법을 선보이고 《Development Figure》(금호미술관, 서울, 2006)에서 디지털 사진과 VR 사진이 예술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또한, 초기 사진의 검프린트와 핀홀카메라, 사진제판술 등 올드 아날로그 프로세스에 관심이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다른 장르와의 협업으로 생물학자와 공동연구하여 생물과 인간의 시선을 사진의 생태적으로 재구성한 《전시 곤충의 눈-시선의 기원》(사비나미술관, 서울, 2016)를 발표하였다.

진귀원

진귀원(b.1981)은 동아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소,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공공미술을 전공하였다. 《사라지는 것들》(통인화랑, 서울, 2023), 《사물의 프리즘》(IFC Seoul, 서울, 2021), 《heat and pressure》(여주시립미술관, 여주, 2020)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artnow 7 : eye wide open》(서울옥션 강남센터, 서울, 2023), 《들의 기원》(서호미술관, 남양주, 2023), 《불안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HOMA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7) 《facing anxiety》(성곡미술관, 서울, 2013)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황란

황란(b.1960)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후 뉴욕의 스쿨오브비주얼아트(SVA)에서 BFA 파인 아트 과정을 수료했고, MPS 아트 프랙티스 과정을 수학 중이다. 《Daydream of rising》(아트필드갤러리, 서울, 2023), 《Becoming Again》(Leila Heller Gallery,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21)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Ascent to Eternity, a Requiem》(애니버서리 뮤지엄, 서울, 2024), 《OMNIVERSE》(뮤지엄 산, 원주, 2022), 《No Strings》(National Glass Centre, 선덜랜드, 영국, 2021)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황선태

황선태(b.1972)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독일 할레미술대학교 Diplom 학위를 마치고 Aufbaustudium을 졸업하였다. 《감각의 빛 그리고 순수의 빛》(표갤러리, 서울, 2023), 《빛-시간을 담다》(갤러리 나우, 서울, 2022), 《The poser of light》(Pontone gallery, 런던, 영국, 2021)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더 윈도: 스페이스 오브 메디테이션》(더 트리니티, 서울, 2023),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따스한 재생》(홍천미술관, 홍천, 2021)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독일 라이너쿤체 재단 등이 있다.

황인선

황인선(b.1974)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밀리노 브레라 국립미술원에서 회화 및 판화를 전공하였다. 《예술의 맛 : 김치의 멋》(케이움 갤러리, 서울, 2024), 《김치 이야기》(세운 아트스페이스, 서울, 2023), 《밥풀 이야기 : 그 너머의 풍경》(더숲 아트갤러리, 서울, 2022) 등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Agri+Culture : 농사, 문화가 되다》(국립농업박물관, 수원, 2023),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Kitanozaka gallery, 고베, 일본, 2023), 《LA ART SHOW》(LA Convention Center, LA, 미국, 2023)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Artist CV

Kang Hong-Goo

Kang Hong-Goo(b.1957) graduated from Mokpo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udied painting at the College of Fine Arts of Hongik University, and received an M.F.A in graduate school. He has presente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Everywhere and Nowhere: Seoul through the Eyes of Kang Hong-Goo* at the Art Archive of Seoul Museum of Art in Seoul(2024), *Uninhabited Island & Inhabited Island - The Sea of Sinan II* a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2023), and *Study of Green - Seoul Vacant Lot* at One & J Gallery in Seoul(2020). Some of the special exhibitions Kang has participated in include *The Possibilities of Urban Regeneration: Partnerships* at Seoul Urban Regeneration Gallery, Seoul(2019), *Wanderers: A Video Chronology*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2019), *Frames after Frames: Modern Photography Movement of Korea from 1988 to 1999* at Daegu Art Museum, Daegu(2018), *SAMRAMANSANG: From KIM Whanki to YANG Fudong*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2017).

Kim Yongkwan

Kim Yongkwan(b.1969) first opened the doors of Archilife's office, an architectural publishing house, in 1994. Along with Archilife, founded in 2009, he founded the architectural magazine Documentum in 2014 and has since been its publisher. He was a photographer and staff writer for the local architecture magazine C3 from 1990 to 2000, and a staff writer for Space Magazine from 2004 to 2011. He was the recipient of the Architectural Photography Award from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 in 1999. In 2023, he held a solo exhibition *Documentations of Relationships, Architecture towards a Scenery* at Dongdaemun Design Plaza in Seoul, and since has had works included in major art museums in Korea, such as the collections of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Bernd Halbherr

Bernd Halbherr(b.1964), an artist from Ulm, Germany, studied at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the Düsseldorf University of the Arts under Professor Klaus Rinke. Since 2011, he has been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at Chung-Ang University. He has held major solo exhibitions at galleries such as the Public Art Project, Kunsthalle Göppingen in

Germany(2019), Sehwa Museum of Art in Seoul(2018), an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2015).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31 Experiments on Light: Intimate Rapture* at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in Seoul(2015), *Sphere_Body_Landscape: Healing Ground* at Soma Museum of Art in Seoul(2013), and *SU:MBISORI* at Jeju Museum of Art in Jeju(2009).

Donah Lee

Donah Lee(b.1967)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udiovisual Educ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received her master's degree in art education from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completed diploma programs at SVA and NYU in the United States. She has received the Seoul Good-Light Award in 2023, the Grand Prize of the Joongang Media Art Competition in 2022, the Best Work Award of the same competition in 2021, and the 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 Award in 2022. Her major projects include the International Media Art Façade at Hwangdeungseoksan Mountain in 2023 and Atelier Gwanghwa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2023. Lee has participated in major group exhibitions such as *神遊 : From Bronzes to Robots* at Hunan Museum, China(2023), and *History's Directions* at SeMA Chango, Seoul Museum of Art, Seoul(2021). Lee's work has been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many renowned ar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Weltmuseum, Austria, Gyeonggi Provincial Office, and Chuncheon Cultural Center.

Lee Myoungho

Lee Myoungho(b.1975) studied photography at the College of Fine Art and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He has presente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shows *Camera Obscura, Camera Lucida and The Between or The Beyond* a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2017), *LEE Myeongho: Photography-Act Project* at Sungkok Art Museum in Seoul(2010), and *The Armory Show 2009* at Yossi Milo Gallery in New York, USA(2009). Lee has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Nirvana* at VDNKh, Moscow, Russia(2016), *Being in Nature* at Museum San, Wonju(2016), *Real in Irreal* at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Wonju(2015), *Basically Forever* at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Tokyo, Japan(2014), *Who is Alice?* at Venice Biennale, Venice, Italy(2013), and *Silent Image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2012).

Lee Joongkeun

Lee Joongkeun(b.1972) studied textile art at Kyungwon University(present day Gachon University) and completed a doctoral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Design and Crafts at Hongik University. Lee has presented many solo exhibitions including *Close Encounter with Korean Heritage* at ARTPARK in Seoul,(2023) and has been involved with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hows, including *Chaosmos* at GoEun Museum of Photography in Busan(2021), and *Hanbok, Reborn as Art* at Savina Museum of Art, Seoul(2023). Lee has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artist residency programs in London, LA, and New Zealand. These include the MMCA Changdong Residency, SeMA Nanji Residency, and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in Paris. Lee's work is included in many art museum collections, including the Art Bank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and Jeju Museum of Art.

Eli Reed

Eli Reed(b.1946) graduated from the Newark School of Fine and Industrial Arts in 1969 and completed the Nieman Fellow Program at Harvard University in 1983. He is currently an active member of MAGNUM and has been a professor specializing in documentary projects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ince 2005.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I. F. Stone Medal for Journalistic Independence in 2021, and the Lucie Award for Achievement in Documentary Photography in 2011. He has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Sea = The Sea is Our Mother* at Jeju Stone Culture Park in Jeju(2021), and *On the Road* at Blanton Museum in Austin, USA(2017).

Zu Doyang

Zu Doyang(b.1976) studied painting from the College of the Arts at Dongguk University. He has been exploring the classic and fundamental potential of earlier photography techniques as a modern medium that captures the present. Zu's first exhibition, *Landscape-X-ray* at Hangaram Art Museum in Seoul(2002), showed his ability to deconstruct the perspective of photography. In *Development Figure*, another solo show at Kumho Museum of Art in Seoul(2006), Zu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digital photography and VR photography as artworks. Having an interest in the old analog process of early photography, he has also researched thoroughly into the processes of

gum printing, pinhole cameras, and photogravure. In collaboration with other genres, Zu collaborated with biologists to ecologically reconstruct the world from the viewpoint of animals and humans in photographs and presented *Insect Eyes: the Origin of Sight* at Savina Museum of Art in Seoul(2016).

Jin Gui One

Jin Gui One(b.1981) studied sculpture from Dong-A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nd public art from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held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including *Disappearing Things* at Tongin Gallery in Seoul(2023), *The Prism of Objects* at IFC Seoul(2021), and *Heat and Pressure* at Yeosu Museum of Art, Yeosu(2020). He has also been involved in numerous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Artnow 7: eye wide open* at Seoul Auction Gangnam Center, Seoul(2023), *Origin of Stone* at Seoho Art Museum, Namyangju(2023), *The Age of Anxiety and After* at Hongik Univers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2017), and *Facing Anxiety* at Sungkok Art Museum, Seoul(2013).

Hwang Ran

Hwang Ran(b.1960)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Arts of Chung-Ang University. She completed her B.F.A program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and is studying MPS in Art Practice at the same school. She has shown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Daydream of rising* at Artfield Gallery, Seoul(2023) and *Becoming Again* at the Leila Heller Gallery, Dubai, United Arab Emirates(2021), and *Ascent to Eternity, a Requiem* at the Anniversary Museum of Art, Seoul(2024), *OMNIVERSE* at Museum San, Wonju(2022), and *No Strings* at the National Glass Centre, Sunderland, UK(2021). Her works are included in major collections such as the Brooklyn Museum in New York, the Museum of Fine Arts in Houston, Texas,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wang Seontae

Hwang Seontae(b.1972)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Kyung Hee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diploma at the Hall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Germany, and graduated from the Aufbaustudium. He has exhibited numerous solo shows, including *Light of the senses* at Pyo Gallery, Seoul(2023), *Light – to capture time* at Gallery Now, Seoul(2022), and *The poser of light* at Pontone gallery, London, UK(2021). He has been involved in

a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The Window: Space of Meditation* at The Trinity, Seoul(2023), *Craft, Moving Beyond Time and Boundaries* at the Seoul Museum of Craft Art, Seoul(2021), and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Warm Revitalization* at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2021). Hwang's work are included in the Art Bank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Rainer Kunze Foundation in Germany.

Hwang Insŏn

Hwang Insŏn(b.1974)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Fine Arts and studied printmak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school. He then completed his M.F.A. in painting and printmaking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in Milan Brera, Italy. He has exhibited 10 solo exhibitions, including *Taste of Art: The Beauty of Kimchi* at the K_um Gallery, Seoul(2024), *Kimchi Story* at the SeUn Art Space, Seoul(2023), *The story of Rice : the landscape beyond, dreamscape* the forest art gallery, Seoul, 2022" at Forest Art Gallery, Seoul(2022), and has been involved in a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Agri+Culture: Farming, Becoming Culture* at the National Agricultural Museum of Korea, Suwon(2023), *Sounds in the Wind* at Kitanozaka Gallery, Kobe in Japan(2023), and *LA ART SHOW* at the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LA, USA(2023).

위대한 유산: 현대미술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The Great Heritage: Exploring Korean Cultural Heritage Through Art

2024. 5. 1 - 7. 7

관장	이명옥	Director	Lee Myung-Ok
학예실장	강재현	Chief Curator	Kang Jae-Hyun
학예연구실	한상익, 신명은 김지홍, 오민지 송지윤	Curatorial Team	Han Sang-Ik, Shin Myeong-Eun Kim Ji-Hong, Oh Min-Ji Song Ji-Yoon
테크니션	최민석, 박노춘	Technician	Choi Min-Suk, Park Roh-Choon
운송	마이아트 글로벌	Transportation	MYART GLOBAL
디자인	그루아트 이수현	Catalogue Design	G-RU Art Lee Su-Hyun
사진촬영	포토룩 조영하	Photography	PHOTOLOOK Jo Young-Ha
번역	임성연	Translation	Lim Sung-Youn
발행처	사비나미술관	Published b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발행인	이명옥	Publisher	Lee Myung-Ok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Republic of Korea
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비나미술관	Supported by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2024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Artist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비나미술관과 작가, 저자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copyright of the book and images is retained by the author, artist an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d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the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ww.museumweek.kr

SAVINA
SAVINA
SAVINA
MUSEUM
MUSEUM
MUSEUM
SAVINA MUSEUM

사비나미술관

03310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3
93, Jingwan 1-ro,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3310
Tel. +82 2 736-4371 Fax. +82 2 736-4372
www.savinamuseum.com



ISBN 979-11-985041-3-5